

할렐루야! 존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사 꾀박과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9월 3일 (토) 제 1888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교회들이 파괴의 잿더미에서 일어나고 있다”

CT, 우크라이나 현지 참혹한 파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 사역 소개

세르게이 나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키이우의 봉비는 기자실에서 펼쳐졌다. 나쿨 목사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교인 몇 명을 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 밖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있었다.

몇 주 전 나쿨 목사의 아내는 남편과 사랑하는 교회에 남겠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키이우를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에 나쿨이 부드럽게 타이르자 잠시 떠나기로 했다. “여보,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어요.”

그는 봉비는 플랫폼에 서서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아내와 아들들, 교인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생각했다.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이자 목사로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한다. 떠나

보낸 그들이 접경 국가에 안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중에 왔을 때 나쿨은 안도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두려움 없이 잠길 수 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 조치에 따라 45세의 나쿨 목사도 18-60세의 여성들처럼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나쿨은 이런 전시 계엄령과 상관없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저는 목사입니다. 대답은 이겁니다.” 키이우 그의 집에 있는 그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양 떼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목자인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자인 제가 어떻게 교인들 곁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Prayer in Ukraine After Six Months of War).



교회에 “올인”하는 교인, 하나님께 영광드린다!

TGC, 톰 S. 라이너 목사 핵심 교인들이 교회에 올인하는 5가지 주요 이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데이터가 많다.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다. 새 신자가 줄어들고 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처치 앤서워스(Church Answers)’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노우 유어 처치(Know Your Church)’라는 설문 조사 도구로 여러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많은 것이 정말이지 우리를 실망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가 어둡고 우울한 것만은 아니다. 핵심 교인들 사이에서는 더 높은 헌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높은 헌신 수준이 궁극적으로는 핵심 교인을 넘어 모든 교인으로 확장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헌신적인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낙관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의 일부 역량을 이러한 핵심 교인에게 쏟아 보았다. 왜 그들은 꾸준히 헌신할까? 왜 그들은 더욱더 헌신하고 싶어 할까? 그들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교회에 “올인”하는 다섯 가지 주요 이유를 말했다 (5 Reasons to Be ‘All In’ at Church).

1. 교회에 대한 헌신은 철저히 성경적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에 게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우리가 인터뷰한 핵심 교인들은



시론 은희근 목사 3면



푸른초장 권호 목사 4면



교회선교의선순환 조용중 선교사 13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나쿨은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날을 바라며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서 섬기는 것은 반년을 넘긴 이 예기치 않은 전쟁에서 나쿨 같은 사역자들이 적응하게 된 기독교 사역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폭격, 1,200만 명의 난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역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소망을 품고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도록 했다.



나쿨은 복음에 굳게 믿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값진 경험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나쿨이 예수님을 알기 오래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소련 치하의 우크라이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성경에 호기심이 많았다. 그는 도서관에서 무신론 서적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 책에는 성경을 논박하려고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의 조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돌이켜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의 관심은 “[그의] 삶 가운데 있던 순수한 은혜”였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후 소련의 붕괴는 구소련 국가들은 경제 위기에 빠졌다. 시대는 암울하고 절망적일 때가 많았다. 그러던 1994년 어

느 날 오후 나쿨은 거리에서 두 명의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들은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다.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복음주의 교회를 다녔던 그 두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나쿨에게 신앙성경도 한 권 주었다. “그 시절에 무료로 신앙성경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

인지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나쿨이 말한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발견한 메시지는 “신성한 공기와 같았다.” “빛과 같았습니다.” 그가 회상한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에 나쿨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삶을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했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서,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치위탁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외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의: 714-470-4563
말씀기록기
말씀을 묵상하며 캘리를 배우는
캘리그래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GOODTV 창사25주년, 뉴욕지사 설립 4주년 기념

이민생활체험수기 공모전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

GOODTV New York이 창사 4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의 노하우를 소개해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견전한 지식을 함양하고, 크고 작은 부동산 투자의 성공 혹은 실패 체험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안정된 삶과 재정적 자유(Financial Freedom)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이민생활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공모대상: 미국내 거주 한인 / 남녀노소, 연령 제한 없음
응모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2년 10월 31일 5:00PM (미동부시간)
분량: Letter 용지 10매 내외, 글자사이즈 10포인트, 글즈 간격 160%(한글, word 가능)
제출처: 이메일 goodtvny2022@gmail.com *응모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석교회 명시

시 상: 상금(총 \$25,000)과 상패 수여

대상(1명): \$10,000 우수상(2명): \$3,000
준우수상(2명): \$2,000 장려상(5명): \$1,000

*수상자는 10월초 GOODTV New York 웹사이트와 개별 통지를 통해 알리며 시상식은 뉴욕에서 한다(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 수상작의 저작권은 본사가 갖는다.

주 최: GOODTV뉴욕 기독교복음방송(46-20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특별후원: Global Leadership Foundation, Property Owner's Club, 뉴욕일보

발행인 칼럼

예고편을 보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예전에 극장에 가면 본 영화 상영 전에 쏠쏠한 재미를 주었던 것이 여러 예고편들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본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본편에의 관심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예고편이다. 요즘에는 유튜브 등에서도 드라마나 영화 예고편을 볼 수 있다. 보셨던 것들 중에 어떤 예고편이 가장 인상적이셨는가? 최근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여름에 본 예고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따로 있다. 유튜브나 영화관에서 본 것이 아니다. 비행장에서 보았다.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기 직전 천둥 번개를 만난 적이 있었다. 물론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했고 그 대신 게이트 앞에 큰 유리를 통해 드넓은 비행장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번개들의 번뜩임을 보았다. 사람들은 번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 이 천둥 번개가 끝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야?'라는 듯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기도 하였다. 나는 그때 찬송이 떠올랐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상의 소리를 듣고 찬상의 빛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히 느끼었다. 찬송만 떠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어느 한 성경 구절도 생각이 나 급히 찾아보았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눅 17:24) 그렇다. 내가 보았던 번개 치는 하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생생한 예고편이었다.

여름은 가고 9월이 왔다. 도대체 이 여름은 무엇을 남기고 떠난 것인가. 수많은 예고편들을 보여주고 떠났다. 난리, 기근, 전쟁 등으로 엮어진 재림의 날에 대한 예고편들을 보여주다가 여름은 떠났다. 보았던 예고편들을 생각하면 가을이 팬스레 '심쿵 거리는' 낭만 일 수만은 없다. 흔들거리는 코스모스와 춤을 추는 부르스의 계절일 수도 없다. 형형 색깔의 국화꽃 앞에서 그 진한 향기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다. 가을에는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극장에서 보여주시는 종말의 예고편을 가슴에 담고 더 늦지 않게 본편의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영상을 보았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그린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었다. 바울과 바울이 있던 감옥의 간수장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항해를 해 보았느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람이 손으로 바닷물을 떠 올리면 손에서 물이 급방 다 새나가지 않으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움켜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은 죽음을 함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새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어나가는 바닷물을 붙잡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바다 전체를 소유하는 자들과 같다고 말을 이어갔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목베임을 당하는 장면이 그 영상의 끝이었다. 그런 바울의 마지막 날은 그가 기대했던 예고편과는 달리 잘못된 날이었나? 아니다. 손으로 붙잡았던 모든 것이 새어나가는 날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하늘로 옮겨지는 영광의 날이었다.

지난 여름 어느 날, 어느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가을까지 같이 가고 있다. '목사님 저는 제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은 제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하나도 남김없이 쓰이다가 제로가 되어 주님에게 가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권사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자신의 예고편을 지금 남편과 함께 선교지에서 계속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영상을 보았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그린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었다. 바울과 바울이 있던 감옥의 간수장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항해를 해 보았느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람이 손으로 바닷물을 떠 올리면 손에서 물이 급방 다 새나가지 않으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움켜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은 죽음을 함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새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어나가는 바닷물을 붙잡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바다 전체를 소유하는 자들과 같다고 말을 이어갔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목베임을 당하는 장면이 그 영상의 끝이었다. 그런 바울의 마지막 날은 그가 기대했던 예고편과는 달리 잘못된 날이었나? 아니다. 손으로 붙잡았던 모든 것이 새어나가는 날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하늘로 옮겨지는 영광의 날이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SNS가 새로운 소통의 시대 창출?

BBC, 소셜미디어 대기업들 사이버 폭력에 충분히 대처 못하는 현실 소개

사이버 폭력에 기술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은 이 문제를 그동안 지나치게 외면해 온 게 아닐까?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된 오늘, 플랫폼 회사들도 모니터링 요원 수천 명을 고용해 사이버 폭력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넘쳐나는 신고 게시물이 감당이 안 되면 자동화 시스템을 활

용하기도 한다. 특히 페이스북은 자사 AI/자동화 시스템을 굳건히 신뢰하며 자랑한다. 페이스북은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에 2017년 알카에다와 IS의 게시물 99%를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주 드러났다 (Social media firms 'failing' to tackle cyber-bullying).

최근 BBC 기자 크리스티나 크리들은 잉글랜드 축구 선수 부카요 사카의 인스타그램에 남겨진 오랑우탄 이모지 댓글을 신고했고 페이스북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자사 기술은 (신고한) 댓글이 우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 내용 말미에 "우리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덧붙이긴 했다. 신고 며칠 후 인스타그램 대표 아담 모세리는 실수가 일어났다고 인정했다. 그는 크리스티나의 트윗에 "우리는 접수된 신고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기술이 있으며 실수로 일부 댓글은 악성댓글이 아니라고 분류됐다. 그러나 해당 댓글들은 악성댓글이 맞으며 실수 발생 경위를 보고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 작가 찰스 아서는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페이스북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기술은 완벽과 거리가 멀다. 왜냐면 선별 작업을 담당하는 인간은 완벽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흑인 축구선수에게 오랑우탄 이모지를 보내는 행위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 시간도 걸리지 않을 일이다. 제법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라면 이러한 패턴을 등록하고, 비하적인 이모지의 전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직 가디언지 테크놀로지 분야 편집장인 아서는 '소셜 워밍(Social Warming)'이란 책을 썼다. 그는 저널리즘부터 정치까지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악영향을 기후변화에 비유했다.

그의 주 비판 대상은 페이스북이다. 그는 페이스북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플랫폼 오남용 행위들을 여태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은 항상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한다. 사람들이 한 번은 친절할 것이라는 희망을 매번 품지만,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정치인들은 거대 테크 기업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의 유해 게시물을 신속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하지만 불법은 아닌 게시물을 판단하는 것은 오프컴(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의 새로운 숙제가 될 것이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테크 기업들도 있다. IT기업 BCS의 빌 미첼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사용자의 신원을 입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발언에 책임을 지고,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면 매우 끔찍한 행동을 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BCS 구성원들조차 이 아이디어에 회의적이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는 사용자들을 배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잉글랜드 축구 선수들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용자들은 본명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소셜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했다. 정치인과 유권자, 유명인과 팬들 사이에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은 사라졌고 우물은 오염됐다. 아직까지 이 상황을 개선할 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Latin America Leadership Forum

남미 지도자 리더십 포럼

리마 행사 Dec 9-14, 2022 (5박 6일)

페루 국가 조찬 기도회 Dec 10

남미 지도자 리더십 포럼, 기독교 지도자 선교대회 Dec 12-13 Sheraton Hotel Convention Center. Lima, Peru

선택-쿠스코, 마추픽추 Dec 13 -16, 2022 (3박 4일)

쿠스코 지역 목회자 연장교육 Dec 14, 2022

잉카의 도시 쿠스코 문화 유적지, 마추픽추 방문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로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 iea@midwest.edu

주관: IEA Peru

공동주최: KIMNET, 국제복음주의협회 IEA

협력: 페루 국가미래전략 연구재단, 페루 국립샌마르코스 대학교(대학설립 471년), KWMC, KWMA, KWMF

협찬: 페루 TV 방송국, CTS TV, CGNTV




교회들이 파괴의 잣대...

(1면에서 계속)
 나폴의 사역에는 키이우 은혜개혁교회 담임목사 사역 9년이 포함되어 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이 개시되었을 때 나폴은 교회 지하실을 폭격 대피소로 바꾸었다. 이 교회는 이곳에서 예배 참석자가 한때는 4명까지 줄었지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피난을 떠나는 교인도 있고 또 군 복무하러 떠나는 교인도 있기에 교인 수에 기복이 심하지만, 이제 나폴 목사는 이런 상황에 적응했다. 나폴 목사는 군사 훈련에 지원했지만, 군 당국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교인들을 섬기게 했다. 최근 인근 침례교회 담임목사 친구는 군 복무를 하게 됐다. 한편, 나폴은 국제 기독교 라디오 네트워크인 극동방송(FEBC)의 선임 방송인으로서 이번 전쟁의 참상을 알렸다. 러시아 침공 초기에 그는 인근의 파괴된 건물을 영상에 담고 남아 있는 키예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상황을 보도했다. 극동방송의 다른 방송인들

도 온라인 기도회를 열고 청취자들을 이 방송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담 센터로 안내하여 영적 도움을 받도록 했다. 6월 기도 모임에 한 청취자가 옆집 건물이 로켓에 맞았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청취자는 이렇게 적었다. 방송 진행자는 겁에 질린 청취자를 위해 기도했고 몇 분 후에 응답을 받았다. “당신의 기도 덕분에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저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은 유난히 치안이 불안한 상태이고, 전쟁이 활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영적인 돌봄을 요구하고 있다. 나폴을 비롯한 목회자들은 육체적인 필요만큼이나 영적인 돌봄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세르게이 라쿠바는 고향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유럽 전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동원하는 복음주의 사역인 미션 유라시아(Mission Eurasia)의 대표로서 목격한 지역 교회 반응 사


역에서 용기를 얻는다. 이 사역은 인도주의 단체는 아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구호 사역을 했다.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이 단체는 수천 명의 어린이를 위한 난민 센터들과 데이 캠프들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 단체는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탈환한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가장 먼저 보냈다.
 라쿠바는 사역팀이 2, 3개월 동안 러시아가 장악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지역에 있는, 약 5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한 마을에 최근에 닿았다고 말했다. 그 팀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망에 빠져 있었고, 러시아 군인들이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소를 전부 도살했다고 보고했다. 그 팀은 주민들에게 음식과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이 사역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라쿠바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면서 최전선에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교회들이 파괴의 잣대

에서 용기를 얻는다. 이 사역은 인도주의 단체는 아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구호 사역을 했다.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이 단체는 수천 명의 어린이를 위한 난민 센터들과 데이 캠프들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 단체는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탈환한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가장 먼저 보냈다.
 라쿠바는 사역팀이 2, 3개월 동안 러시아가 장악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지역에 있는, 약 5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한 마을에 최근에 닿았다고 말했다. 그 팀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망에 빠져 있었고, 러시아 군인들이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소를 전부 도살했다고 보고했다. 그 팀은 주민들에게 음식과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이 사역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라쿠바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면서 최전선에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교회들이 파괴의 잣대



시론

세상은 ‘그딴 데’ 가 아닌 ‘이런 교회’ 를 보고 싶어라! (2)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주님 평화! 얼마 전 두 아들을 둔 30대 후반 형제를 전도해서 집 근처 교회를 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왜 그딴 데를 나가느냐고.” 교회가 오늘날 젊은 청년, 청장년들에게 한국 사회 안에서 ‘그딴 데’ 가 된 교회의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기에 ‘자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와 시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다 밝히기 부끄럽지만 ‘그딴 데인 교회’는 상당 부분 기성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 원인은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간 오늘의 교역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가장 먼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본질적 모습’을 되찾아 가는 힘겨운 싸움 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밤낮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그 메아리라도 듣고 자기만족에 도취한다면 그런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성도는 자기들끼리 빛의 자녀라고 바라보며 자가 만족하는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는 세상을 ‘다시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현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삶’을 ‘재현’(Re-presentation)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예수가 하셨던 사역들을 ‘교회(=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가 오늘 서 있는 그 자리’(Here & Now) 다시 해아(Re-presentation)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 안의 벽’을 깨부수고 나와서 세상을 다니며 예수 사역을 재현하는 ‘작은 그리스도’요 ‘걸어다니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마 5:14)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실 때(마 27:50)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마 27:51) ‘거룩은 ‘성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휘장이 찢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성전에 ‘머무는 거룩’이 아니라 세상 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성과 속’의 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 세상’안에서 ‘성, 예수살기’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영생에서 출발합니다(눅 10:25).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그들을 보고도 누가 그냥 지나쳤는가, 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줬는가 차이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붙잡아주는 삶이 ‘영생’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풀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37)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즉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책임적 나눔과 돌봄과 사랑’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정직한 교회, 세상이 다 맞다고 해도 말씀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홀로일지라도 분명히 선포하는 공의로운 교회,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 보살피고 헌신하는 교회, 교회 곡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천국 곡간을 채우는 교회, 자비와 긍휼을 품고 위로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실천하는 교회,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에 자연히 악의 기운을 물리치는 빛된 교회, 말씀으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며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평화의 도구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도움을 필요로하는 이웃들을 외면치 않고 다가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이익과 불편함에서 자유하는 교회 등등. 세상은 사람들은 ‘그딴 데’가 아닌 ‘이런 교회’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딴 성도’가 아니라 ‘이런 성도’를 세상은 보고 싶어합니다. 무상 가운데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전해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pastor.eun@gmail.com


교회에 “올인” 하는 교인...

(1면에서 계속)
 적어도 직관적으로 그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신약 성경이 지역 교회에 관한 기록이거나 적어도 지역 교회의 맥락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명목상 교인, 곧 헌신 없는 교인으로서 그리스도께 기쁘게 순종할 수 없다.
 2. 교회에 대한 헌신은 책임을 낳는다.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누가는 그들의 첫 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행 2:42). 초기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홀로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교제”에 힘썼다. 이 교제는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 이 교제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으며, 그래서 영적 전진을 치르면서 살았다(엡 6:10-17). 그들은 서로가 필요했다.
 헌신적인 핵심 교인들과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그들에게서 들었다. “헌신은 일관된 책임감에서 나오면, 그러한 책임감은 꾸준한 교제에서 나온다”.
 3. 교회에 대한 헌신은 충실하고 깊은 성경 공부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인터뷰한 헌신적인 핵심 교인들은 성경 공부에 대한 헌신을 통해 헌신적인 교인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된 성경 공부 방법을 들었다.
 첫째, 그들은 개인 연구와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1년 안에 성경을 통독한다는 계획이 가지고 있다. 둘째, 교회 안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셋째, 매주 설교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이 핵심 교인 중 다수에게서 팬데믹 기간의 디지털 교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 공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을 이구동성으로 성경 공부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4. 교회에 대한 헌신은 지성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도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교회가 쇠퇴의 길에 들어서면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헌신된 교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관된 열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순종은 혼자서 하면 산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온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로 약속할 때 힘 있는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계획과 책임이 체계 있게 된다. 우리의 연구는 교회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전도 운동을 확인했는데, 하나님은 헌신된 교인들을 그 운동에서 촉매로 활용하고 계신다.

5. 교회에 대한 헌신은 가족들에게도 유익하다.
 우리는 핵심 교인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꺼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건강한 교회는 결혼생활과 자녀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다. 일부는 헌신적인 교인일수록 건강한 가정생활을 한다는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헌신과 가정생활 사이의 상호 이로운 상관관계를 계속 연구하던 더욱 희망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연구의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 용기가 생긴다. 우리가 아는 가장 기쁨이 넘치고 사심 없는 사람들은 지역 교회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퍼뜨릴 것이라 우리는 확신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



전성진목사 찬양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으로 은혜받고 회복되는 자리에 초청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전성진

목사

찬양 간증 금요 집회

9월9일 8PM

갈보리 선교교회
(담임 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 847-846-9988

현) 가주 놀노래 합창단 지휘자
전성진 찬송 교실 강사

학 력: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음악 전공(음악박사)
Northwest University School of Music 음악 전공(음악석사)
Sherwood Conservatory of Music 음악 전공(음악학사)

합창단 지휘: 한국 해니니 남성 합창단 지휘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 지휘
시카고 크리스천 관악기 지휘
시카고 관악 합창단 지휘

교 수 경 력: 미국 아메리칸 음악대학 음악과 전임교수
한국 기독교 음악대학 음악과 전임교수
부산 동인 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
제주 교육대학교 외래교수

경 력: 부산 시립 합창단원
시카고 리릭 오페라 합창단원
바하 코랄 솔리스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심어편 주연
한국 솔리스트 앙상블 창단 멤버(음악대학 교수들로 구성)
한델 "메시아" 테너 독창자 (26년 동안 60여회)
MBC-TV 내마음의 노래 출연, MBC-FM 일요음악회 해설자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주 바라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며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처럼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배웁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만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상처(SCAR)가 별(STAR)이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바뀌려면 바라보아야 할 것과 바라보지 말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누구,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환경만을 바라보면 낙담합니다.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둘째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의인 의식에 빠지거나 죄인 의식에 노예가 됩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서, ‘나만 잘났다’라고 교만하거나, ‘나는 못났다’라며 자책하고 기죽어 삽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실력자이고 지도자였으며 출세한 엘리트였지만 자신이 이룬 학력과 업적을 바라보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사람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아침에 아내, 자녀, 건강, 재산, 친구를 잃은 읍은 친구들을 바라보았다가 조롱당했습니다. 친구들은 “악한 자만이 고난을 겪는다.”라며 읍을 정죄하고

훈계하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용광로 같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왕이나 정치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중상모략과 참소를 당하고 사자 굴속에 던져질지라도 권력자들을 의지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사단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예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환경, 나 자신,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한마디로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운동선수가 바라보아야 할

것에 ‘싱글 포커스’를 합니다. 축구 선수는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차고, 투수는 포수를 향하여 공을 던지며, 마라톤 경주자는 오직 골인 지점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싱글 포커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을 누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 바라기’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시다.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고난을 감당합시다. 십자가 후에 있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삽시다.

푸/른/초/장

권호 목사
(합신대 설교학 교수)



시대도 어려운데 개인의 삶도 힘겨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다.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도 우상숭배라는 죄에 빠진 것이다. 하나님은 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히게 하신다(1절). 이 기간은 지금껏 등장한 이방인들의 역압 중에 가장 긴 시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통 중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듯 사사시대는 뒤로 가면서 점점 암울한 영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낱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8절)

어린이가 같은 마노아

계속 살펴보겠지만 마노아는 믿음도 부족하고, 영적인

문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18절) ‘기묘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렐리’는 ‘이해를 초월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신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

우리를 죽이시려면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이 놀라운 광경도 보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하며 남편을 진정시킨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23절) 의심 많은 남편, 상황 판단 못하는 남편, 겁 많은 남편에 비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일 후에 마노아의 아내는 어찌 되었을까. 여호와와의 사자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삼손’

고통받았지만 부르짖지 않는다. 자신들이 어떤 죄를 범한지도 모르고, 범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받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회개하면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갖지 않는다. 그러니 부르짖지 않는다. 분명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이다.
오늘날도 동일하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 고통 중에도 부르짖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이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고통 중에도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 바로 영적 질병에 걸린 이스라엘이다. 고통받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멍하게 있지 말아야 한다. 고통의 시간은 기

남편에게 소개한다. 남편이 이적을 보고 두려워 떨 때 지혜로운 말로 남편을 안심시킨다.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여인들을 귀하게 쓰신다. 앞 장에서 지혜와 용기의 여인 사사 드보라를 쓰셨다. 본문에서 이름을 알 수 없으나 믿음과 지혜가 넘치는 삼손의 어머니를 쓰신다. 이 여인을 통해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과 지혜의 여인을 귀하게 보신다. 남편에게, 아이에게, 공동체에게 여인은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여인들을 통해 남편과 아이들과 교회를 세운다. 여인을 빛나게 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과 지혜다. 우리는 딸들과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믿음과 지혜로 자라고 섬기고 끝까지 신실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묻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묘자로 나타내신다.

누가 기묘자를 경험하는가?
사13:1-36



암울한 시기에 한 가족이 등장한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2절) 이 부부는 단 지파에 속해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마노아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불임은 신이 내린 저주로 여겨졌다. 시대도 어려운데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개인적 상황, 불임은 그녀에게 더욱 절망감을 주고 있다.

분별력도 부족한 것 같다. 방금 살펴본 마노아의 기도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리라 하시니”(5절)
놀란 여인은 남편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나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가 들은 이야기를 반신반의한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한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여호와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간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20절)
얼마나 놀랐을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마노아는 자신이 여호와와의 사자, 즉 하나님을 보았으니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이라고 짓는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목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관성과 적용점을 깨닫는다.
첫째, 부르짖지 않는 것은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이다.
사사기는 일정한 순환 구도가 있다. ‘이스라엘의 범죄-이방인의 압제-이스라엘의 부르짖음-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심-평화’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사가 뒤로 갈수록 이 부르짖음이 사라진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40년을 블레셋에게 지배받고

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다시 부르짖어야 한다. 그럴 때 고통은 의미가 되고 찬양이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믿음과 지혜의 여인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삼손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다.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름 모를 여인이다. 그녀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불임이라는 인생의 고통까지 겪는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을 믿음으로 받는다.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와의 사자를

사사시대는 영적 타락의 극치의 시기였다. 시대도 암울한데 마노아의 가정은 불임이라는 고통까지 겪고 있다. 이 희망이 꺼진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마노아는 정직하게 묻고 기도한다. 본문에서 마노아는 묻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마노아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순박하고 어린이와 같다. 그저 아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 그 때 기묘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본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 똑똑해서 그분께 묻지 않는 사람보다, 어리숙해도 정직하게 묻는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겁 없이 목을 뺏빚이 드는 사람보다, 두려워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에게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 본문을 보며 깨닫는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기묘자로 나타내실지 모른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린이처럼 정직하게 묻으며 기도하자. 겸손히 엎드려 도와 달라고 간구하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정에, 공동체에 기묘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 삶에 기묘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hopreacher@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는 발의안 AB2223 통과 못하자, 새롭게 내놓은 Prop 1. 꼭 반대하세요!!

Proposition 1(Prop.1 / 제안 1): 캘리포니아 헌법에 “포괄적 낙태 보호 장치”를 넣는 것:

캘리포니아 의회는 6월에 다가오는 11월 투표에 모든 낙태가 출생 순간까지 확실히 보호되도록 캘리포니아 헌법(Constitution of California)까지 개정하는 계획을 추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승인이 나면 캘리포니아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태어나서,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을 아기들까지 말기 낙태를 허용하는 발의안 - 프랍 1 (Proposition 1)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11월달에,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잘 모르고 Prop 1을 지지하여 통과/ 승인된다면, 다음과 같은 Prop 1에 있는 내용들이 주 헌법 개정안으로 실행될 것이며, 그 결과로, 캘리포니아에는 더 많은 태아살인이 허용될 것입니다.

이번 11월에 올라오는 Prop 1 (발의안 1)에 꼭 반대해야 하는 이유:

아래는 Prop 1의 내용을 조금 번역한 것입니다. “The state shall not deny or interfere with an individual’s reproductive freedom in their most intimate decisions, which includes their fundamental right to choose to have an abortion and their fundamental right to choose or refuse contraceptives. This section is intended to furthe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guaranteed by Section 1,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not

be denied equal protection guaranteed by Section 7. Nothing herein narrows or limits the right to privacy or equal protection.”

번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과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을 포함하는 모든 개인만이 할수있는 결정에서 개인의 생식 자유를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 1조항 (Section 1)이 헌법상 보장해주는 사생활 권리와, 제7조항 (Section 7)이 보장해주는 동등한 보호를 거부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증진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생활의 권리나 동등한 보호를 좁히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Existing California law restricts abortion after the age of viability, usually about 24 weeks, unless a doctor determines the abor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life or health of the mother. Prop 1 would eliminate the viability restriction, as the “right” to abortion could not be interfered with based on viability or any other standard. 기존 캘리포니아 법은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생존 가능 연령 이후 낙태를 제한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Pro 1은 낙태에 대한 “권리”가 “생존 가능성”이나 “다른 기준” 때문에 방해 받을 수 없으며, 동시에 생존력 제한을 없앨 것이다.”

Prop 1이 통과된다면 일어날 일은, 발의안이 이미 잘

설명을 하고 있으나,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안 1(Prop1)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Constitution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정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성경적인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발의안 1은, 결론적으로 임신중절과 피임약 선택권 또는 거부권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위에 개정안에 적힌듯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Prop 1을 통해 하고자 하는 “낙태권리 -생식 자유를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확고하게 적고 있기에 문입니다.

한마디로, 엄연하고 확실하게 살아있는 한 인간의 생명을 또 다른 인간(들)이 마음대로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뛰어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태도: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모든 생명이 소중한 가치가 있고 임신에서 자연사까지 우리의 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크리스천들까지, Anti-God, Anti-Bible 문화의 유행 (Pattern of this world)를 쫓아가는 결정들을 만든다면, 더 이상 우리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수있는 세상은 사라질것입니다. 비록, 많은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가

지신 고유의 권리, 성경적인 기준을 거부하지만,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출생 전 어느 시점에 낙태가 제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법부는 이미 낙태와 생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무려 2억 달러(\$200 million) 이상을 올해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주에서까지 온 낙태 신청자들을 위한 모든 총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미 빚으로 덮여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어디에서 충당하는걸까요? 납세자들의 세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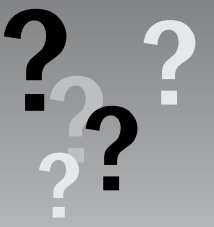
낙태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오는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의 수가 3,00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치솟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가 더 필요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결국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세금만 더 올라갈것입니다.

결론적으로 Proposition 1은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극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안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뿐이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귀하게 보지 않도록 죄의 길로 이끄는 발의안입니다. 또한 납세자들을 처벌하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후기 낙태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기까지 하기에 꼭 Prop. 1에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Tvnex.org 에가셔서 참조하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교회에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왜 주보에 이름을 내는지요? 십일조는 성도의 기본 의무인데 그렇게 꼭 밝혀야만 하는지요?

- 뉴욕에서 윤집사

A: 교회에서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주재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길리고 혼란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추적하여 밤에 기습작전으로 승리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까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마중 나온 샐렘왕 델기세택이 자기를 환영하고 축복하자 자기의 것에서 1/10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십일조입니다. 이 샐렘왕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야곱도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인 밧단아람으로 가다가 도중에 광야 벵엘에서 잠들었을 때에 꿈에 하늘의 사다다리를 경험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면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름을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왜 교회에서 십일조를 드린 사람의 주보에 내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십일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에 하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보다 개인의 헌금 확인

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과부의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고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냈었다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의 정성은 원칙적으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보에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기보다 본인 개인의 헌금 확인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을 볼 때마다 불쾌하고 인본주의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너그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 헌금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성벽건축이나 성전건축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제사장부터 레위사람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문짝을 달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교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야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2) 헌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우리 부친이 목회하실 때 회계부에서 헌금 사고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한 회계 담당 집사의 부정으로 헌금이 없어지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헌금 명단이 있어야 드린 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명단이 없으면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3) 이것은 공색한 변명이 될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도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통계적으로 보면 약 30-35% 정도가 십일조를 드립니다. 사실 성도들이 십일조를 제대로 드리면 결코 재정적인 면에서 어렵지 않게 됩니다. 한국 초대 교회가 일찍 자립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조선 총회에서 십일조 드리는 연보 운동을 전개하여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종진 목사 9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목)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제주컨퍼런스 제8회 Spirituality Conference 장소: 제주시 오솔로호텔 Lecture Hall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2(금)~3(토)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4(주)~5(월) 인천 소망교회 (황규례 목사) 010-4423-2838

6(화)~7(수)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정영준 목사) 010-5418-6717 장소: 여수비치리조트

12(월) 한국교회 예배회복운동본부 제주 컨퍼런스 제주시 오솔로호텔 Lecture Hall

13(화) 오후 서울 주평안교회 (김명길 목사) 010-9082-7325

14(수) 오후 충주 금식기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주최: 느헤미야 부흥사회의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15(목) 저녁 한일산 기도원 (원장 이영금 목사) 주최, 한미연방부흥가사단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010-2238-3999

18(주) 저녁 서울 송파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19(월)~20(화) 군산 엘리기도원 (원장 송영선) 010-2017-8874

주최: 뉴글로벌 부흥사회 (대표회장 정태윤 목사)

서울 종로 한국 원로목자교회 (안드레 목사 베드로 목사) 010-4209-7004

서울 중로5가 연합회관 3층

21(수) 오전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 6181-9282

21(수) 오전 한반도 평화통일기원부흥성회 (대표회장 민학근 목사) 010-3944-7962

24(토) 오전 Honest 클럽 (회장 고해원 목사) 010-8414-2000 장소: 국회 헌정광

25(주)~27(화) 구미 덕천제일교회 (정태윤 목사) 010-2296-0675

28(수) 오후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최동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29(목) 오전 목포기도원 (원장 허정인 목사) 010-3004-0675 주최: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민 목사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29(목) 저녁 양명 율령기도원 (031) 774-8591 "사,세" 대회 대표회장 김복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배운다”

브라질 아마존에 가면 두 개의 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여 아마존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가 특히 두 개의 강물이 서로 만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쪽 강은 검은색의 물이요, 다른 쪽 강은 황색의 물입니다. 한쪽은 볼리비아 지역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이고 다른 쪽은 브라질 서부에서 흘러내린 강입니다. 두 강은 마나우스 근교에서 만나서 한참을 더 가서 결국 하나가 되어서 대서양 바다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합쳐지는 곳에 가보면 두 개의 강이 뚜렷하게 다른 것이 드러납니다.

즉, 두 개의 강물이 합쳐지지 만 서로 색깔도 다르고 밀려오는 강물 속도도 다르고 밀도와 온도가 달라서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로 밀쳐 내다 주고 있습니다. 강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자기의 물에 익숙해져서 다른 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물줄기가 섞이지 않는 것이고 합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배 위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강줄기는 하류로 한 10-20 km쯤 가다가 비로소 서서히 합쳐진다고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 합쳐지는 순리적인 모습이 한

참 후에나 이뤄집니다. 물은 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쳐질 요소가 갈라질 요소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일하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 안 맞고 안 통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서로 밀쳐내지만 마침내 합쳐진다는 진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져 봅니다. 특히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또 비슷한 것을 확인할 때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

다. 주 안에서 한 형제란 합쳐질 요소가 갈라질 요소보다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 나와 다르게 일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나와 크게 일을 하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특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하는 일의 방식 뒤에 왜 그런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면서 살 때 삶에 많은 지혜를 주게 됩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경제가 폭염과 가뭄에 따른 전력난으로 휘청이고 있다. 코로나19 봉쇄 충격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더해 전력난까지 3중고가 겹치면서 중국이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5.5% 안팎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7월 공업 이익이 4조8900억 위안(95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1~6월 공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지만 7월 한 달 동안 크게 줄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국에 따르면 41개 주요 업종 가운데 25개 업종의 이익이 줄었고 그 중 철강 산업은 81%가량 급감했다. 중국은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동향을 나타내는 공업 이익을 산출해 매달 누적치를 발표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체 분석 결과 중국의 7월 공업 이익이 6227억 위안(12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7월에 비해 12%가량 줄었고 전달과 비교하면 25%나 감소한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공업 이익은 지난 6월까지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됐다”며 “7월 감소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쓰촨성과 충칭시, 장쑤성, 후베이성 등 남서부 지역에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이달 들어서만 91차례 항공기를 띄워 구름씨를 뿌리는 등 인공 강우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강우 로켓 4발을 발사한 충칭에선 지난 7일 이후 18일 만에 처음 비가 내리는 등 일부 지역에서 인공 강우 효과를 봤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전력 생산의 80% 정도를 수력 발전에 의존해온 쓰촨성은 발전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공장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한 상태다. 양쯔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큰 배가 다니지 못해 물류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이러한 폭염과 가뭄을 근거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3.6%로 0.4% 포인트 내렸다. EIU는 “중국은 지난해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을 겪으면서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에도 전력난을 막지 못했다”며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의 서부 지역은 코로나19 봉쇄 여파가 비교적 덜해 상하이, 베이징 등 동부 도시의 경제 피해를 상쇄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전력난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4.4%에서 7월 3.3%로 낮췄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3%, 노무라 2.8%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인민은행이 곧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를 살리려면 완화적 재정·금융정책보다 훨씬 많은 게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봉쇄 완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 등

을 통해 민간 수요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료 폭탄’ 독·프 ‘내년 10배 인상’ 예고



유럽이 내년 러시아와 에너지 대란과 극심한 가뭄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1년 전과 비교해 내년 초 무려 10배 이상 인상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 영국은 오는 10월 당장 전기세를 포함한 에너지요금이 80%가 넘게 올라 더욱 각 가정이 허리를 졸라매야 할 판국이다.

AFP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가 내년 전기료를 10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의 전년도 에너지 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85유로(11만원)였다. 통신에 따르면 내년 독일은 850유로(113만원), 프랑스는 1000유로(133만원)로 최소 10배 이상 오를 예정이다. 4인 가구가 1년에 약 3.6MWh 전기를 사용하면 가정하면, 독일은 41만원에서 409만원, 프랑스는 무려 482만원의 요금폭탄이 던져지는 셈이다.

영국은 당장 10월 요금 인상이 예고됐다. 영국 가스전기시장은 10월 일반 가계의 1년치 에너지 사용 평균 지불액이 3549파운드(560만원)로 80% 이상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기세 급등의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가 이달 말 유럽행 가스관을 완전히 걸어 잡겠다고 예고한 데 있다. 지난 19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 공급하는 발트해 해저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1의 유지보수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3일 동안인 다음 달 2일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에 불을 지폈다. 지난 25일 유럽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전달보다 10.02% 치솟은 1MWh당 321.41유로(42만7000원)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도 전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이다. 탈원전에 탈탄소를 외쳤던 독일은 원연기가 부족해져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온 현상으로 라인강이 바짝 마르자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프랑스도 최근 원전에 필요한 냉각수로 쓰이는 강의 수온이 상승해 원전 가동에 이상이 걸렸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드롬주에 있는 트리카스탕 원전의 원자로 1기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트리카스탕 원전은 폭염 등을 이유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원전재가동,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독일은 울겨울 에너지 대란을 대비해 남아 있는 원전 3기 수명 연장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다가올 겨울 에너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EU 순회의장인 페드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에너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상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EU 비상 장관회의를 소집하

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3분의 2로 줄이고 203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전원 ‘통일교 점점’ 조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의 점점을 조사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자신과 통일교와의 점점을 조사해 다음달 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총 조사 항목은 8개다. ▲통일교 관련 모임에 축전·메시지를 보냈는지 ▲통일교 홍보지에 인터뷰나 대담 기사가 실렸는지 ▲통일교 관련 단체 모임에 참석하고 회비를 기부했는지 ▲선거 때 통일교 측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는지 등이 다.

의원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당에 보고한 후에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새로운 점점이 드러나면 추가 보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해당 조사 결과를 다음달 6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후 일본 내에선 통일교와 정치권, 특히 자민당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0일 각료 19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개각’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관계가 드러난 7명의 각료를 교체했다. 하지만 새 내각에도 통일교와 연관된 각료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불거진 통일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NHK 방송 조사를 보면 이번 내각에 입각한 73명의 각료와 부대신, 정무관(차관급) 중 약 40%인 32명이 통일교와 점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6%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비교해 16% 급락한 수치다.

특히 자민당과 통일교가 연루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응답자의 87%가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자민당 집행부는 당과 통일교의 조직적 관여는 “일절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의원 전원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통일교 논란과 관련해 “한발 더 나아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2024 대선 드산티스·펜스 급부상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사실상 ‘대선 후보’로 보이고 있다. 2020년 미 대선에서 맞붙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맞붙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싫다’

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은 쿨피악대 여론조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1%가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내에서 여전히 견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출마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폭동’ 등 각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며 그의 ‘사법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뚝뚝한 트럼프’ 드산티스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미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이다. 최근 공화당 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단연 론 드산티스(43) 플로리다 주지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후보로 1위 도널드 트럼프, 2위 론 드산티스, 3위 마이크 펜스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 6월 뉴햄프셔에서 공화당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산티스 주지사가 39%의 지지율로 37%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돌렸다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출신으로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다녔다. 이후 해군에 입대했고, 2006년 특수부대 네이비실 소속으로 이라크에서 복무했다. 그는 2012년 플로리다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14년, 2016년 연임에도 성공했다.

드산티스는 전형적인 ‘트럼프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특히 그는 2016년 러시아가 트럼프와의 거래를 통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FBI를 연일 비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공화당에서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했다. 덕분에 2018년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 근소한 격차로 승리한 바 있다.

그가 공화당의 마래로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매우 닮은 인물하면서도 합리적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이 많다. 미 주간지 더뉴욕커는 ‘론 드산티스는 트럼프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드산티스를 ‘두뇌가 있는 트럼프(as Trump with a brain)’라고 칭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여준 바이든 정부에 대한 공격은 공화당 지지자들을 열광케 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설 폐쇄 등 폭도운 정책과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정책으로 플로리다주를 준수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떠오르는 배경에는 그가 ‘트럼프식 정치’를 흡수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자신의 지지자임을 인식하고, 트럼프의 제스처와 말투 등을 따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게다가 드산티스의 정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공격’을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능하다. 동성애와 관련된 디즈니사와의 전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3월 드산티스 주지사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수업 중 동성애에 관한 토론을 금지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즈니 경영진이 해당 법에 대해 규탄성명을 내며 반대사를 표명하자 그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월드에서 수여했던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철폐하며 강경 조치로 맞대응했다. 디즈니가 재정적으로 연간 1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보게 되자 보수진영은 ‘트럼프와 쌍벽을 이룰 인물을 찾았다’며 다시 한번 그에게 열광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재선 확정 후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드산티스 측 브라이언 그리핀 비서실장은 국민연방에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이 아닌 플로리다 주지사로 올해 11월 재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53. 황혜수 (1892-1984)

황혜수(黃惠受)는 1891년 10월 25일에 평안북도 의주군 위화면 상단리에서 아버지 황계정과 어머니 김 씨의 4남 4녀 중 일곱째 딸로 태어났다. 미국에서 목회자와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황사용과 황사선이 그녀의 오빠다. 그녀는 정신여학교의 전신인 서울 연지동의 연동여학교를 졸업한 뒤 평북 선천의 표성아카데미와 부산 초량여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다가 유학차 도미하였다.



고등학문을 배울 것이니 혹자 말하기를 공부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나 오직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라... 내가 학문이 있으면 범사에 답답할 일이 없을 터이요, 남에게 수치 당할 일이 없을 터이니 고로 자기를 위하여 고등학문을 배울 것이요.

오빠 황사용과 함께 황혜수는 1911년 6월에 상항에 도착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 같다. 동부부 이등한 이원익을 대신하여 미국 남감리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원의 한인 여학생 7, 8명을 위하여 몇 시간씩 조국 사정과 국어를 가르쳤다. 이듬해 2월에 나성 인근 옐랜드로 이주했다가 상항 밀스 중학교에 입학했다.

1911년 11월호 대도에 기고한 "대한 부인도 고등학문을 배울 일"이라는 아래의 글에서 황혜수의 여성에 대한 기독교 교육관을 엿보게 된다. "세월은 살과 같이 가고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 어언간 여름을 작별하고 가을을 당도하니 남산 초목은 단풍을 띄웠고, 동원 금수는 깃을 찾아 돌아가는 것을 보며 자연히 동방구에 출몰한 반도가 심중에 생각나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살펴보니 15억 인성이 팔만 리주 지구상에 처하였으나 다 같은 등급에 있는 것이 아니요, 상중하 삼등으로 분석되고 일국 백성 중의 귀천과 남녀 중의 귀천 분별됨을 생각하니 이는 다른 까닭 아니라 학문의 고하를 인함인 고로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에 뜻을 잡아 대한 부인도 고등학문을 배울 문제로 사방하고 공경하는 나의 동포 부인들에게 한마디 말로 경고하고자 하나이다.

대개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남녀 귀천의 분별이 없이 내어셨건마는 지어 우리나라 하야는 4천여년을 내려오도록... 남인은 귀하고 여인은 천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여자에게 학문이 없는 연고요, 오늘날 한국 부인이 다른 나라 부인들보다 천한 것도 또한 고등학문이 없는 연고라...그런즉 불가 배울 요령을 몇 가지로 말할 터인데 첫째는 각각 자기를 위하여

것이니 한 집은 두어 사람이거나 부모 형제 처자가 합하여 이룬 집이니 그중에 가정사를 근력 조조하며 유아를 교육하여 장래 대제를 예비하는 자가 누노. 이는 가정주부가 아니요. 여차한 큰 직임을 맡은 부인이 무식하면 그의 교육을 받아 후일에 꽃다운 영웅에 이름을 얻으며 중대한 사업을 이룰 자의 전정 이 가석하지 않으리요. 대개 한 집에 희락을 누리지 못하여 하루가 멀다고 집안에 소리와 일가에 싸움이 빈번함은 다 부인에게로 좇아 나오나니 이는 학문이 없으면 항상 집안이 화목할 방책을 연구하여 그대로 말하고 일하며 일가의 화목할 것을 생각하고 실행함이니... 어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날로 더하지 않으리요. 이와 같고 보면 그 집과 그 문중이 부인으로 말미암아 빛날지니 불가불 우리 한국 부인들도 고등학문을 배워야 할지라.

넷째는 일국을 위하여 고등학문을 배울 것이니 이로 말하면 일국은 한 집과 일문을 합하여 성립한 것이다. 그런즉 나라의 근본은 1문이요, 1문의 근본은 한 집이요, 한 집의 근본은 부인이다. 이렇게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짐을 진 우리 1천만 부인들은 깊은 잠을 일찍 깨어 고등학문을 배워서 우리의 직분을 다함시다. 대저 어른이 어린아이보다 낫다 함은 아는 것이 나으며, 생각하는 것이 나은 까닭이며, 우리나라 남자가 부인보다 낫다 함은 아는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나은 까닭이니 이는 본성이 성품이 나은 것이 아니요, 해가 가며 날이 가는 동안에 학문을 연구하여 그 지식을 확충한 연고로 나아진 것이다. 그러나 남자 중에 영웅호걸 됴이 부인으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한 자 어디 있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배울 사람을 말하건대 임의 칠팔십 세 된 노인이 아니요, 이미 세상을 작별하고 천국으로 가신 우리 할머니도 아니요. 다만 청년 부인들이 배울 사람이라. 여자가 학문을 배울 것이나 한 문제면 어떠한 여인이나 배울 것이나 이는 고등학문이라 하는 문제라. 이에 대하여는 이왕 학도 된 사람과 지금 학생으로 있는 사람이며, 장차 학생 될 사람이라. 그러면 아직 학생이 못된 부인이라도 점점 계급을 따라 고등학문까지 배울 수 있으니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여자에게 고등학문이 있으야 될지니 어찌 힘을 바 아니리오. 그런즉 한국 부인들은 옛날 아간 부인과 라란 부인을 호칭코던 천시 만고를 참고 고등학문을 힘쓸 것이거나와 1천만 남자들도 남자의 직분을 다하고자 할진 데 여자의 고등학문을 찬조할지이다."

황혜수는 1913년 7월에 상항한인감리교회 청년회 학무구 임원으로 활동했고, 이듬해 2월에 상항 총회관에서 개최된 북미지방 총회 총부회장 취임식에서 그녀는 오빠 황사선 등과 함께 '동정가'를 불렀다. 유학생 신분에서 그녀는 1914년 4월에 재해로 인하여 서간도 동포의 기항 사태를 돕기 위하여 50센트를 기부했다. 밀스 중학교에서 엘라베마주에 있는 아테네 중학교로 전학하여 1915년에 졸업한 후 이듬해 아테네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1919년에 졸업하였다.

아테네 대학을 졸업한 그해 6월에 황혜수는 오하이오주 풀럼버스에서 개최된 미국 감리교 100주년 기념식에 남자와 아동 등 20명의 한인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참석 후 상항을 거쳐 하와이



YWCA에 한인 2세 여성을 중심으로 형제클럽을 발기하여 한국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웠고, 1929년에는 무궁화 구락부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1932년 3월에 YWCA에 한인 이민 3세 소녀를 중심으로 해당화클럽을 조직하여 한국 문화와 예술과 풍속 등의 강연회를 열어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장려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가르쳐 계승하여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는데 주력했고, 그녀를 이어 공백순과 함할라 등이 이끌어 약 20년간 계속되었다.

1935년 1월에 모인 호황 한인제일감리교회 계삭회에서 황혜수는 문포라 등과 함께 전도사로 임명받았고, 수년간 재임한 여자 청년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그해 2월에는 부인 보조회 정기회로 모여 새 직원을 선정하였을 때 황혜수는 이헬렌과 함께 사교원을 맡았다. 그날 회장은 안정송이었다. 그해 7월에 휴가를 얻어 캘리포니아로 향했다가 8월에 귀향하여 9월에 부인 보조회 주최로 있었던 환영회에서 황혜수가 미주 한인 소식을 들려주었다. 그해 11월에 송치순, 안시택과 함께 황혜수는 호황 한인제일교회 전도사로 임명받았다. 황혜수는 1937년 12월에 호황 한인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 임두희의 사모로 모인 호황 한인제일감리교회 계삭회때 분처 전도사로 보고했고, 그날 1938년도 분처 전도사로 강영각과 함께 임명받았으며, 서기를 추천하고 월보 재간행에 재정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황혜수는 1940년 1월에 무용에 조예가 깊은 채용하와 함께 2년간 한인 YWCA 안에 한국무용과를 설치하여 한국 문화를 알렸다. 이듬해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가운데 1942년 1월에 하와이 사회 전체의 단합과 사기에 관계되는 한인 집단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규정 본부에 알리고 정부의 필요한 소식을 한인사회에 전달하여 최대한 시민들의 단합과 협동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간방위청 사기부 산하 10인 하와이 한인 실행위원회가 조직될 때 YWCA 총무 황혜수도 선정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다.

호황으로 이주하여 그해 9월에 호황 한인 YMCA 총무가 되었다. 이듬해 YWCA 안에 어머니 클럽을 조직하여 길거리 표지판 읽기, 병원 진료방기, 자녀 옷 만들기, 영양 음식 만들기 등을 가르치며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1924년 여름에 캘리포니아대학 여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황혜수는 문포라, 최두옥과 함께 그해 10월에 호황 한인감리교회 영합 청년회 고문이 되어 청년회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는데 그해 본 청년회는 회원 연령을 35세까지 연장한 가운데 회장 정복관, 부회장 강영각, 서기 현알피시, 재무 정달라, 학문국 흥영매, 교제국 현해드로 등이 새롭게 다짐하였다. 1927년 5월에 범태평양 교육회가 개최되었을 때 황혜수는 김영기와 함께 한인 대표로 참석한 후 그해 10월에 회원 20명과 함께 호황 한인

전도사이자 한인여성교육가이고 독립운동가였던 황혜수

둘째는 풍부한 천연적 남녀동등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부할지니 지금 세계에 머리를 들고 출세하는 20세기 부인 사회에서는 고등학문을 배워 남녀가 동등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 여자는 투표권까지 얻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 부인에게 이르러서는 투표권이 고사하고 남녀의 귀천이 옛날로 미국 종교 방불하여 남자가 앉았던 자리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한자 남자의 수종이 되어 인생 100년을 깊은 규문 안에서 슬픈 탄식으로 지나게 되었고, 다만 아는 것은 해가 동으로 올라오면 아침엔 줄 알고, 서로 기울면 저녁엔 줄 알아 완전히 듣는 귀머거리와 보는 소경과 걷는 앓은뱅이와 말하는 병어리로 이름 좋은 삼천리 옥중에 길이 있다가 세상을 이별케 됴은 보통 학문이 없는 연고라... 만일 금일이라도 남녀동등권을 얻고자 하면 고등학문을 배우시오...

셋째는 한 집과 일문을 위하여 배울

노노. 맹자는 중국에 성인이므로 그 모친의 삼천지교와 단기 권학을 받으므로 되었고, 알렉산더 제일 같은 영웅도 그 모친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후에 유럽과 아시아에 명성을 떨쳤으니 이를 보면 과거 영웅들도 다 부인의 교육으로 말미암음이고, 장래도 그러할 것은 천연한 이치라. 이를 보면 뜻을 듣고 생명 재산을 보호할 자도 부인이요. 국권을 회복하고 지킬 자도 부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금일 문명한 나라는 부인의 고등학문이 발달하므로 남자의 일을 감당하여 일호라도 남자에게 내리는 일이 없나니 우리도 비참하고 부끄러운 지위에서 떠나려 하면 우선 고등학문을 배워야 할 것이며, 자유 천지에 영영한 복락을 누리며 열국의 치소를 면코저 할진 데 하루바삐 고등학문을 배우시오.

이상이 고등학문을 배워야 할 일을

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대학원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월-토)</p> <p>telgocusa@ehoo.com / www.lb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YM, You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후 1:20 영어권 (중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ills,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게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세례기도(화-토): 오전 6:00</p> <p>Tel: (323)811-2202, www.mpcd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배델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세례기도: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실비치사랑교회 (Seal Beach St-Rang Church)</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 Clubhouse 3 Lobby(주일 Churchhouse 3 room 1#)</p>
<h4>엘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h4>엘리스사역원</h4>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 상담사목: (월-금)오전 10:00(오후)4:30 사역대상: 1. 영성사역 2. 교회 발전도 여성성리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웍 사역</p> <p>www.el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연세대학교: 오전 9:00, 11:00</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리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o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4>좋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n.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g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히비스소망교회</h4>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요일: "아성경이 읽히지"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cbk.kim@hibiscus.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게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게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게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말씀과 땅 (16) - "네 사랑하는 독자"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실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송명희 시인이 작시한 위의 찬양 가사는 골고다 산상에 올려진 성자 하나님과 그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시고 또 받으셔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담고 있다.

"가라"(창 12:1)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한 여정의 끝 자락에서 아브라함이 다다른 곳은 바로 이 제단의 성역이었다. 장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를 사이에 두셔야 할 그 성역에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을 데리고 올랐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일러 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세 사랑은 창세기 22장에 이르러 아주 구체화된다: 12장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는 22장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12장의 사래, 롯, 모든 소유, 모든 사람은 22장에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으로; 그리고 12장의 제단 쌓음은 22장에서 "내가 네게 일러 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로. 특히, 22장에서는 "가라" 뿐만 아니라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는 사랑이 직접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가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가라", "데려가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 순종으로 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신 12:10-14).

가나안에 거하는 동안 여러 곳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한 곳을 택해 주시며 그 곳에서 번제 드릴 것을 명하셨듯이, 장차 이스라엘 역시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한 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할 것을 지시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스라엘과 그 후손에게는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시는데(신 12:28), 이 또한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급되는 모리아, 그래서 이 지명의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린 곳(창 22), 하나님이 예배처로 택하신 곳(신 12),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대하 3)이 모두 동일한 장소임을 유추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리아가 가리키는 예루살렘에서(대하 3:1, "예루살렘 모리아 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자신다.

학자들 가운데 더러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가 역대하 3장의 예루살렘 모리아와 같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역대하 3장 본문이 다윗의 제사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연 예루살렘이었으면 회귀 지명인 모리아 대신 창세기 22장이 14장에서처럼 "살렘"이라는 지명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윗의 유산을 말하는 역대하 문맥에서 아브라함이 언급되었을 이유가 없고, 모리아가 회귀 지명임을 고려할 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와 대하 32장의 모리아가 서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일 것이다"

얼마 전 주말에 샌디에고에 사는 아들 집에 다녀왔다. 저녁을 먹고 종일 집에만 갇혀 있던 강아지에게 바람도 쏘여 줄 겸 같이 dog beach에 갔다. 더운 여름날을 보낸 온갖 종류의 개들이 바다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누워 누워 해가 지려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옆을 지나가는 강아지가 내 강아지인지 물었다. 아니라고 했더니 그 강아지가 한참을 주인 없이 돌아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잠시 후면 해가 지고 깜깜해질 바다에 혼자서 떠돌아 다니는 강아지를 보며 여자들 몇 명이 모여 서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몸집도 작고 눈도 잘 안보이는 듯 했고 어디가 아픈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아마도 누군가가 병든 강아지를 슬그머니 바닷가에 놓아 두고 가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도무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저런 불쌍한 강아지를 바다에 버리고 간단 말이야"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 아들은 급하게 동물 보호센터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 아들이 찾아오니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떠나는데 그 강아지도 사람들을 따라서 파킹 쪽으로 가고 있어서 뒤를 따랐다. 갑자기 어디서인지 나타난 동양 여자가 자기 강아지라며 네 마리를 바다에 데리고 왔는데 두 마리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다고 했다. 주인을 찾게 되어서 얼마나 반갑던지 아들은 다시 동물 보호센터에 주인을 찾았다고 전화를 했고 우리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올 수 있었다.

작은 아파트에 사는 아들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다.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다. 아침에 출장을 떠난다고 한 며느리가 화장실을 사용하러 가 있어서 기다렸다. 딸 같으면 빨리 나오라고 문이라도 두드리겠는데 며느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 말없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기척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잠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아들에게 며느리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 문을 좀 두드려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방문을 들여다보니 며느리도 아들도 자고 있는 것이었다. 화장실 문이 닫혀 있어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더니 아들 말이 화장실 문이 뻑뻑해서 한 번씩 세계 밀어야 열린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화장실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참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우스웠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나 사람들,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가정(assumption)을 지니고 산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가정은 삶의 경험에 근거한다. 바닷가에서 혼자 돌아 다니는 강아지를 보면 주인이 버린 것이라고 쉽게 가정하고 화장실 문이 안 열리면 당연히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근거로 나의 추측에 의해서 "...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잘못된 가정은 편견을 가져오고 편견에 근거한 판단은 우리를 좁은 테두리 안에 가두기 때문이다. 내가 지닌 가정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가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은 쉽사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많은 경우 잘못된 가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공동체에 아픔을 가져오기도 한다. 짧은 아들 집 방문은 우리의 가정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lpyun@apu.edu

아들을 사랑하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다듬어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다.

'데려가라', '가라', '번제로 드리라' -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축을 이루는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시절, 이만자의 삶을 시작하며 받았던 말씀과 같은 "가라"를 포함하고 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가라"(lek-lakā)는 말씀을 받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살며 "제단을 쌓"은 바 있다(창 12:5-9). 창세기 22장의 세 동사가 말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도 이미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 때 식솔을 이끌고 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무리 지어진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8절에 이르러서야 "열조에게로 돌아가"지만, 22장 이후의 기록은 사래를 앞서 보내고(23장) 이삭을 분가시킨 후(24장) 그가 생을 마감하는 내용을 담은 트랜지션 대목이기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남길 신앙의 유산 쌓기는 22장에서 마감한다고 보아야 한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장차 자신들이 당면할 과제와 맞물리게 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 22:16-18)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땅... 내가 네게 일러 줄 한 산 거기"이 신명기 12장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과 같은 곳이라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으로 여부사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대하 3:1).

성전, 즉,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신 12:11)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는 것이다(대하 3:1). 오직 창세기 22장과 역대하 3장에만 언

로 다른 지역이라 볼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진다.

이 모리아에서 우리는 세 부자의 역사를 접한다: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의 기록은 이 중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순종과 더불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보게 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증언은 이 마음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담아 야 할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spark4@gordonconwell.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6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340-1(131-10호)</p>	<p>금란교회</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ran.org Tel: (82)2-492-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정형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왕복예배: 오후 9:00</p> <p>Tel: (031)877-6383~4 Fax: (031)877-6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인교회</p> <p>담임목사: 윤진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695 39-349-339-1726 39-06-943-9678(고양시) VA DEI QUINT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이덴교회</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p> <p>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608)</p>	<p>성실교회</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www.seongsil.or.kr Tel: (82)2-999-99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p>	<p>성일교회</p> <p>담임목사: 이상욱</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p> <p>Tel: (82)2-2643-8553~4 Fax: 2649-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p>수정교회</p> <p>담임목사: 이성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2-59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동교회</p> <p>담임목사: 최영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서울 (02)389-2235 (110-280) 서울시 중랑구 인성동 137번지</p>
<p>시은소교회</p> <p>담임목사: 김철승</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안동 419-2</p>	<p>신길교회</p> <p>담임목사: 이기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942-1988, 서울 (011)2-942-198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p> <p>담임목사: 박영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p> <p>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박재동로 17길 29(잠실동) www.sincheon.or.kr</p>	<p>신촌교회</p> <p>담임목사: 박노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cheon.org</p>	<p>안암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명환</p> <p>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3길 50-1 www.anamjeil.or.kr</p>	<p>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토요일)</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강원 춘천시 성산구 불영로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p> <p>담임목사: 길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8)</p>	<p>장위제일교회</p> <p>담임목사: 신일권</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강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p> <p>담임목사: 주중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p> <p>담임목사: 최현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p>	<p>충신교회</p> <p>담임목사: 이현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p>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월요일 아침.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22마일 떨어져 있는 휴양지 산타 카탈

리나 섬을 가기 위해서 통버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가시기를 원하셨는지(?) 카탈리나 섬을 가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카탈리나 섬은 다음으로 미루고 통버치에 있는 영국 조지 5세의 왕비 이름을 따서 지은 초호화 여객선 퀴메리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웅장한 퀴메리호를 세밀하게 구경했습니다. 퀴메리호를 구경하고 나서 이 배가 31년간 운항하고 나서 퇴역(?)되었다는 역사를 보고 좀 아쉬움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퀴메리호는 1936년에 항해를 시작하여 1967년까지 약 31년 정도밖에 운항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운항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사람들의 수송 수단이 배에서 비행기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1950년 대에는 100만 명 이상이 배로, 50만 명 정도가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

넌습니다. 그런데 1960년 대에는 400만 명 이상이 비행기로, 60만 명 정도가 배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 퀴메리호는 어쩔 수 없이 퇴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퀴메리호는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운송 수단으로써는 가치가 떨어져 퇴역하였지만, 퇴역 후 55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기억되고 관광 상품의 가치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나게 되고, 교회들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존립의 도전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몸부림친다면 퇴출 또는 퇴역 후에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퀴메리호는 수송수단에서 기념비적인 모

습으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듯이 우리도 역사의 뒤로 물러났을 때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 자신의 영적 교만과 힘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룩해 온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월이 흘러 리더십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해서 좋은 교회로 기억이 되고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불행하게도 지도력의 교체 속에 싸우는 교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발자취, 섬김의 흔적들을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남기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가 우리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지라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겼는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소개되고 도전을 주는 인생이라면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아무리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났을 지라도 결코 패배자가 아닌 축복받은 삶의 승리자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의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예수의 흔적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는 기념비적인 삶,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syurchurch@gmail.com

2022년 밀알의 밤, 메인게스트 원더걸스 선예 초청

9월30일~10월2일 3차례 공연 예정

남가주 밀알 선교단이 개최하는 '2022년 밀알의 밤'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리더이자 현재 '마마걸' 멤버로 활동 중인 '선예(본명: 민선예)' 사모를 메인 게스트로 초청해 개최된다. 일정은 9월 30일(금) 오후 7시30분 ANC은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10월 1일(토) 오후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10월 2일(주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차례로 진행되는 밀알의 밤에서 선예 사모는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원더걸스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선예는 뛰어난 재능과 가창력으로 'Tell me' 'So hot' 'Nobody'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미국 빌보드 차트 76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한 그녀는 아이티 선교를 다녀오는 등 선교, 봉사활동에



도 열심이었고, 2013년 캐나다 교포 출신 제임스 박 선교사와 결혼 후에는 세 아이의 엄마로 가정에서 충실하며 다양한 간증, 찬양 활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캠프제이워십'과 함께 CCM '예수가 보이네'를 발매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선예는 '이방인', '복면가왕' 등을 통해 근황을 전하다 지난해 tvN 예능프로그램 '엄마는 아이돌'로 연예계에 복귀했다. 이후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 '놀라운 토요일', '미운우리새끼' 등의 방송에 잇따라 출연하며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발라드 음원 '울지 않을게'와 첫 번째 솔로 앨범 'Genuine'을 연달아 발표하며 가수 활동도 재개하고 있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뮤지컬도산 성황리에 열려

"도산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무대예술그룹 시선(총감독 클라라 신)이 주최한 뮤지컬 도산 공연이 8월25일(목)부터 28일(주일)까지 라미라다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뮤지컬 도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의 독립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활약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그의 삶 가운데서 미주와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에서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뮤지컬의 극적인 전개로 그려냈다. 27일(토)

오후 2시 공연에서 클라라 신 감독은 "토요일 오후 공연을 위해 함께해준 관객들께 감사드립니다"며 "3년 전 첫 공연 때보다 내용면이나 기술적인 면이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뮤지컬 도산이 한인커뮤니티의 공연문화의 하나의 컨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11면으로 계속)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만성 기침

-S씨는 40대 중반으로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다. 6개월 전부터 목이 간질간질 하면서 기침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기침 치료용 물약을 먹었다. 그때마다 기침은 일시적으로 멎었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기침이 재발했다. 점점 기침이

이다. 지금 사는 주택은 지은 지 5년 되는 집이고 집안에 애완 동물도 키우지 않았다. S씨를 검진해보니 혈압은 정상이고 폐음이 약간 감소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이었다. 흉부 방사선 소견도 정상이었다. 폐 기능 검사상 폐 기능이 약간 감소해 있었지만 기관지 확

단되지 않고 8주 이상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부비강염으로 인해서 분비물이 목 뒤로 흘러 내려가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다. 또 위산이 역류해서 기관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만성 기침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흔한 원인이 위에서 언급한 천식인데 비교적 흔하지만 제대로 진단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 폐암 등으로 만성 기침을 할 수 있고 고혈압약도 만성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알레르기로 인한 기침인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코에 뿌리는 분무제를 쓰면 되고 위산 역류로 인한 경우는 제산제를 쓰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천식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함께 써야 한다. 또한 복용하는 혈압약이 있다면 기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의:213-383-9388

8주 이상 이유 없이 기침이 계속될 때

심해져서 잠을 잘 때도 기침 때문에 몇 번이나 깨고 가계에서도 기침 때문에 일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특히 기침 때문에 교회 성가대를 더는 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 몇 번 갔는데 알레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레르기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S씨는 과거에 아무런 질병도 없었고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건실한 가정이며 주일에배를 빼먹지 않는 신앙인

장제를 주고 나서 폐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S씨는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고 천식 치료 후 곧 기침이 멎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S씨의 증례는 경증천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호흡곤란 없이 마른기침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나 알레르기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기능 검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만성 기침은 다른 원인이 진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립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목회전공
+ 선교전공

2022년 가을학기 수업일정

8월 22일-10월 16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inistry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상황화)

10월 17일-12월 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사역을 위한 문화인류학)

2023년 봄학기 수업일정

1월 9일-3월 5일
DI 8280 Doctoral Research Methods (사회조사 방법론/논문작성법)

3월 13일-5월 7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 치유)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동부교계 게시판

2022 청소년할렐루야집회

뉴욕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 주최로 9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이틀간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에서 Pastor John Lee(Remnant Church)를 강사로 "2022 청소년할렐루야집회"가 "One Kingdom Church"라는 주제로 열린다.

일시: 9월 16일(금) 7 PM - 9:30 PM, 17일(토) 5:30 PM - 8 PM
강사: Pastor John Lee(Remnant Church)
주제: One Kingdom Church
▲문의: admin@aycny.org

2022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2022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의 미국동부지역 컨퍼런스가 열린다. 엔데믹 시대의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웹사이트(danielprayer.org)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대상: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1차: 9월 13일(화) 10 AM - 3 PM, 필그림성교회(양춘길 목사)
2차: 9월 19일(월) 10 AM - 3 PM,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영렬 목사)
웹사이트 등록: danielprayer.org "미국 Conference" 신청페이지 작성
▲문의: 21danielprayer@gmail.com

주예수사랑교회 은퇴 및 위임예배

주예수사랑교회는 은퇴 및 위임예배를 9월 4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예수사랑교회에서 드린다. 강유남 목사의 은퇴와 황용석 목사의 위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201-941-5555, 201-982-2520

한소망교회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뉴저지에 위치한 한소망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조건: 정규신학대학교 M.Div 학위 재학 이상, 2년 이상 EM 사역 경험, 합법적 신분

제출서류: 졸업/재학 증명서(신학교), 사진 포함한 이력서(Resume), 신앙간증서, 추천서 2통, 설교영상 혹은 설교 오디오 샘플 파일 or 링크 2개 이상, Vision Statement
이메일로 제출 (HopeRecruitCmte@gmail.com)
홈페이지: www.hopechurchusa.org
▲문의: 한소망교회 201-801-9100, HopeRecruitCmte@gmail.com



선교축제연합예배 중 연합찬양팀의 찬양 인도

뉴욕수정교회, 선교축제연합예배

선교사역 보고와 간증을 통해 헌신 다짐

뉴욕수정교회(황영송 목사)는 8월21일(주일) 다문화(한국어, 영어, 중국어권), 다세대가 함께한 선교축제연합예배를 드렸다. 본 예배에서 여러 선교사역 소식과 간증을 나누며 선교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연합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여, 이철우 집사의 기도 후 지난 7월에 다녀온 오하이오 주 데이튼 난민 선교팀들의 영상 보고와 간증으로 이어졌다.

데이튼 첫 번째 팀의 선교 보고 영상 상영 후 이린다 집사(EM)의 간증과 이진하 장로의 간증이 이어졌다. 이진하 장로는 "누구든 알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선교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며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난민

선교센터를 그 지역에 세우고 난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황영송 담임목사는 디모데후서 4:2-5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의 큰 꿈 갖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데이튼에 선교센터를 세우며 시작된 수정교회의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다. "이제 데이튼 난민선교에 대한 더 큰 꿈을 갖고자 하며, 대이론 지역사회의 실질적 필요까지도 돌볼 수 있는 선교 영역의 확장의 비전을 나누었다. 이를 위해 수정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전한 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올해 데이튼 난민선교에는 4개의 기관과 9개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난민선교에 참여하였는데, 수정교회는 앞으로도 여러 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오하이오주 난민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기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 난민선교에 관심있는 교회는 수정교회(nysoojung.org)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김재상 기자)

실버선교학교 제34기 가을학기 개강

선교이론 및 실제, 실습 등 다양한 교육 예정

뉴욕실버선교학교 제34기 가을학기가 오는 9월13일(화) 오후 7시30분 베이사이드장로교회에서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총 10주간 강의를 시작한다. 이번 34기 가을학기는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선교이론과 실습 등을 선교전문가를 통해 배우게 된다. 참가자는 선교에 관심있는 목사와 사모, 청년 등 성도는 누구나 가능하다. 선교학교 수료자는 전원 단기선교 파송

을 받아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수료증도 받게 된다. 뉴욕실버미션(대표:김재열목사)은 오는 11월21일부터 한 주간 선교일정을 잡고, 이번 가을학기 수료자가 참가하는 단기선교를 추진한다는 계획에 의료, 한방, 이마용, 안경, 사진, VBS(어린이사역)등 사역을 준비할 예정이다.

▲신청문의: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917-963-9356, 사무총장 이현근 장로 646-220-8222 (정리: 김재상 기자)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사역에 참여했던 뉴욕실버선교학교 수료자들

뉴욕양무리장로교회, 교회이전 및 임직 감사예배

임직자 임명 및 피택장로 소개

뉴욕양무리장로교회(이준성 목사)는 교회이전 및 임직 감사예배를 8월 28일 주일 오후 5시에 드렸다. 교회의 이전과 함께 임직자로 안수집사 장권식, 명예권사 김소자, 시무권사 장순옥 등이며 이용진 피택장로를 소개했다. 1부 감사예배에는 이준성 목사의 인도로 시

작되어 살롬찬양단(김봉규 목사의 경배와 찬양과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의 대표기도, 김희복 목사(뉴욕교협 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희복 목사는 하박국 2:20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교회이전을 한 양무리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한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라"고 전했다. 2부 임직식은 임직자 서약, 피택장로 소개, 집사안수, 권사임직식을 진행했으며 이원호 목사(가든노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양무리교회 이전교회 주소: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정리: 김재상 기자)



임직감사예배 후 사진촬영



퀸즈장로교회 시니어들이 US OPEN 경기 관람 후 단체 사진 촬영을 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US OPEN 아시안계 커뮤니티 시니어 초청

무료 테니스 경기 관람 및 점심식사 제공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US OPEN 시즌을 맞아 Fan Week 기간이었던 지난 8월 24일(수)

에 뉴욕 아시안계 커뮤니티 시니어 200명을 초청해 무료 테니스 관람 및 점심식사를 제공

(김재상 기자)

했다. 참여한 인원은 시니어 센터의 한국어, 중국계 데이케어 회원들과 퀸즈장로교회 시니어들이었으며 미리 단체 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진행했다. 대부분의 참여 인원들에게 US OPEN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경기를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US Open Fan Week 기간 동안에는 팬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적은 스타급 선수들의 연습경기과 훈련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초청을 통해서도 시니어 들은 총 36번 그랜드슬램을 우승한 세레나 윌리엄스와 그랜드슬램 단식에서 23번 우승한 라파엘 나달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평일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경음), (917) 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 (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특별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구역모임 Tel: (646) 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 1, 3, 5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광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신도인문학대학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 3부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7: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 433-06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9, http://ornu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군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6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6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585-1869 1130 N. Linitz Hwy C-1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영어)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법선 신학교 교수 2. 임하뉴신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 33-36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차세대 목회자를 위한 영성세미나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자”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주최한 차세대 목회자를 위한 영성세미나가 ‘위드코로나 시대에 목회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8월25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열렸다. 이번 영성 세미나는 OC지역의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한인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장로협의회, OC한인여성목사회, 세계어머니기도회 등이 협력해 OC지역 차세대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영성 세미나 강사로는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김



2022 OC 영적대각성 차세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요 목사(메텔한인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나서 각자의 목회 경험을 나누고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 소개했다.

진유철牧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 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셨고 2천년 역사 속에 고난과 변질, 타락이 있더라도 주의일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령은 인격이시기에 귀중히 여겨야 하며 내가 성령께 의지한 만큼 역사하신다. 성도

들이 힘들게 살고 초죽음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맹탕으로 예배드리면 승부가 안 난다.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여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OC교협 중경회장)는 “오늘날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해법은 다시 하나님과 성경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영적 리더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기는 리더를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목회적 위기를 성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은 OC교협회장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제1차 3050 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 대각성 21일 새벽 특별집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1일간 여러 단체들과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무모한 도전일수 있지만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금번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 내용을 잘 살려서 교회마다 코로나를 넘어서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제1차 3050 차세대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대각성 다니엘새벽기도회 마지막날 집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1차 3050 차세대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대각성 다니엘새벽기도회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자”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장로협의회, OC여성목사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3050 차세대목회자 21인 초청 OC 영적대각성 다니엘새벽기도회가 지난 8월1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총 21일간 열린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다. 21명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은혜의 말씀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8월24일(수) 오전 5시30분 열린 기도회는 추석근 목사(선한뜻교회)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막 5:21-24, 25-4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추석근 목사는 “우리의 가슴에 담겨둔 상처와 두려움, 슬픔과 염려를 주님 앞에 토하여 내고 도움을 구하기를 바란다.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만물은 그 발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기를 바란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다른 수단을 찾지 말고, 주님께 집중

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같이 여기고 사모하며 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다니엘새벽기도회는 △박재만 목사(미라클포인트교회), △김가형 목사(가주장로교회), △장범원 목사(남가주 온유한교회), △윤봉원 목사(미주서부교회), △이천 목사(노엘교회), △서철원 목사(뉴헤븐교회), △박승우 목사(선감의교회), △장인우 목사(OC갈보리교회), △이근환 목사(함께하는교회), △조진용 목사(바인교회), △이창남 목사(주님의손길교회), △조준민 목사(치노밸리아름다운교회), △박정기 목사(더락 한인교회), △최신준 목사(정금교회), △황여호수아 목사(남가주프라미스교회), △이태희 목사(주심교회), △정중환 목사(남가주믿음의교회), △서민수 목사(방주교회), △곽태규 목사(생명의길교회), △이진환 목사(순전한교회), △추석근 목사(선한뜻교회)가 강사로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한인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 성황리에 열려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모든세대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를 8월27일(토) 오후 5시30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오버플로잉 미니스트리 찬양팀(리더 잔주), 소리엘 지명현 목사, 갓스이미지, 김브라이언 선교사가 출연했으며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렸다. 지명현 목사는 “소리에 1990년에 첫 음반을 내고 찬양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찬양문

화가 활성화 되었었다”며 “오늘 함께 출연한 젊은 친구들을 보니 많이 반갑고 감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에 참여한 나성한인교회 교인은 “20년 만에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고 교회가 가득 차는 것을 보니 마음이 벅차 올랐다”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한인교회에서 열린 모든세대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에서 찬양자들이 청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2022 다민족기도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2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언론설명회

“미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실 것”

2022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대표회장 한기홍목사)가 오는 10월 2일(주일)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청교도 신앙회복운동본부, OC교협, 자마, 성시화운동본부, KACC, 은혜한인교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다민족연합기도회는 ‘주님께로 돌아가자(Return to the Lord)’란 주제로 열린다. 이를 위한 언론 설명회가 지난 8월 26일(목)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강태광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한기홍 대표회장의 환영의 메시지, 공동대회장 신승훈 목사의 설교, 공동대회장 박성규 목사의 격려의 말씀,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기홍 목사는 “2022년 다민족연합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린다”며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서도 기도는 멈출 수 없다. 이시대가 어려워졌고 미국은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갔다. 미국이 무너지면 엄청난 대환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이는 영적인 것이 가장 크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매년 다민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사역해왔다”며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미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부흥을 부어주실 것이다. 다민족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합하는 마음은 매우 소중하다. 이번 대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놀라운 부흥 주실 것”이라 말했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는 지난 2011년 11월11일 로즈보울 구장에서 열린 다민족기도대회부터 계속되어왔다. 2014년 대회 때까지는 각 민족별로 기도회 시간이 배정이 되어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으며 2015년부터 한인주도로 기도대회가 열렸다. 올해는 다시 2014년까지 진행되었던 방식으로 각 민족별로 시간이 주어진다. 한어권, 영어권, 스페인어권, 그리고 흑인과 인도, 그리고 월남권 등 4개 그룹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다. 다만 올해 기도회는 어떠한 민족이 기도대회를 인도할 것인지 모든 민족이 함께 동참하게 된다. 대회장소인 은혜한인교회는 매주 주일 타이쿱을 위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들어 이번 기도대회 역시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기도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자막이 제공될 것이다. 강승연 목사는 “이번 기도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대각성의 역사를 돌아볼 때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번 기도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부흥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QT를 위한 시창작 17기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은 QT를 위한 시창작 17기를 연다. 이번 시창작 17기는 히브리문학과 현대문학의 중보적 입장에서 기본 시창작법을 배우고, 각 주제에 따라 최서 8편의 시를 쓰며 수료후 시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 수강료는 \$100이며 자세한 일정에 대한

▲ 문의: (818)590-6469로 하면 된다.

나성금란교회 창립40주년 기념주일에

나성금란교회(담임 이석부 목사)는 창립40주년 기념주일에 배를 11일(주일) 오전 11시에 드린다.

▲ 문의: (310)973-5106

2022선교대회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2022 선교대회를 ‘주 예수 우리 산 소망’이라는 주제로 9월7일(수)부터 11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선교대회 주강사는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와 김경환 목사(SRT 인터네셔널 대표)이며 대회일정은 7일부터 10일까지 오후 7시, 11일(주일)은 1-3부예배

▲ 문의: (626)744-9191

한인가정상담소 정부지원 무료 가정폭력 전문가 교육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한인 종교지도자 및 커뮤니티 리더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온라인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 교육과정은 오는 9월6일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총 40시간온라인 줌을 통해서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등록은 <https://tinyurl.com/DV40hrs> 에서 하면 된다.

▲ 문의: mlee@kfamla.org

한미연합감리교회 2022 말씀 채우기 말씀잔치

한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지성 목사)는 2022 말씀채우기 말씀잔치를 9월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박승호 목사(오하이오연합감리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 문의: (719)570-0300

사랑의 나눔 이웃돕기 일일 찻집 콘서트

사랑의선교회, 한국장애인예술협회, LA한인장애우복지회 주최, 미주복음방송 협찬으로 오는 9월 3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랑의 나눔 이웃 돕기 일일 찻집 콘서트’가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LA 목사 중장단(지휘 서문목 목사)과 테너 오우영, 바리톤 이사호, 차기학, 캐서린 목사가 중창을 하고, 차인홍 교수(미국 라이트주립대 음악학 교수)가 줌 온라인 라이브로 특별 출연해서 간증 및 바이올린 연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장애우 회원인 느헤미야 공, 김은정 시인이 시 낭독을 한 후 피터김, 김요한, 정인호, 유창렬 목사, 차기학 목사가 축사 및 격려사를 한다. 당일 공연 티켓은 1인당 10불로 전액 사랑의 나눔 이웃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 문의: (213)381-2202

코로나 시대 교회 회복을 이끄는 요한계시록 포럼

국제계시록포럼이 주관하는 요한계시록 포럼이 9월 6일(화) 오후 2시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강사는 최수일 목사(WVUI 교수)이다.

▲ 문의: (213)700-1802

달라스교민초청 콘서트

세시봉 윤형주 장르 달라스 교민초청 콘서트(9월)가 9일(금) 오후 7시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972)446-0178

한빛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한빛교회는 차광일 원로목사 추대 및 류성창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9월11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714)670-6778



라미라다 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린 뮤지컬 도산

<9면에서 계속>

“이를 위해 좀 더 작품제작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역을 맡은 최원현 씨는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감사하다. 도산선생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원현 씨 외에 백승렬 씨가 도산 안창호 역을 맡았으며 3일 동안 총 6회 공연에서 각각 다른 도산의 모습을 그려

(박준호 기자)

한국장로교회 “우리 교만과 분열을 회개합니다”

한국장로교회총회 설립110주년 기념대회

“우리는 기후 재난 시대에 창조 세계의 보전에 힘쓰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김은경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과 이정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총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열린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다시 세상의 희망으로’에서 이 다짐을 포함한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은 한국장로교회 선언’을 낭독했다.

배광식 예장합동 총회장은 앞선 기념예배에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신 32: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소홀히 했던 대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고 정의를 뿌리 내리게 하고 소외된 곳과 다문화 가정을 찾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다음세대를 위해 기독교 교육을 강화하고 복음적 영성 운동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백석, 기장, 예장고신 등 58개 장로교단이 기념대회에 함께했다. 목사와 장로 등 참석자들은 “이 땅에 장로교회 총회를 세

우셔서 민족복음화 터전을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셔서 감사하다”며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갈등과 분열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한국교회 예배 회복, 한반도 평화통일, 다음세대의 신앙계승과 부흥을 위해 합심기도했다. 장종현 예장백석 총회장은 대회사에서 “110주년을 맞아 장로교회는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모 예장통합 총회장은 축도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은 축사하고 강학근 예장고신 총회장은 격려사를 했다. 소강희 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축시를 낭독했다.

기념대회에는 장로교단 목회자, 장로, 성도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장로성가단(단장 이배영 장로)은 ‘은혜’ ‘시편 20편’ 등을 불렀다. 이날 헌금은 폭우로 재난을 입은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진표 대.목사와 장로 등 참석자들은 “이 땅에 장로교회 총회를 세



출생 등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다.

오후에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이상규 교수(백석대), 연규홍 교수(한신대), 이희성 교수(총신대)가 발제했다. 이상규 교수는 ‘한국장로교 총회 조직 110주년 역사적 고찰’ 발제에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왕이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은 축사하고 강학근 예장고신 총회장은 격려사를 했다. 소강희 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축시를 낭독했다.

기념대회에는 장로교단 목회자, 장로, 성도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장로성가단(단장 이배영 장로)은 ‘은혜’ ‘시편 20편’ 등을 불렀다. 이날 헌금은 폭우로 재난을 입은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진표 대.목사와 장로 등 참석자들은 “이 땅에 장로교회 총회를 세

“낙태죄 조속한 대체 입법” 생명 살리는 기도회 시동

바른여성선교회 기도회 열어

교계 프로라이프(생명존중) 운동 단체들은 지난 49년 동안 미국 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해왔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매년 대규모 기도회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여온 현지 교회의 기도와 기독교인들의 헌신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낙태 관련 법이 공백 상태인 국내 상황에서 생명 존중의 입법 마련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상기시킨다.

바른여성선교회(대표 이기복 목사)는 25일 서울 용산구 ‘생명의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를 열고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에 실마리가 됐던 ‘돚스 판결’의 의의를 되새겼다. 또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하자고 기도했다.

‘돚스 판결’은 2018년 낙태 시술 제공기관인 잭슨여성보건기구가 미시시피주 보건부 토머스 돚스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15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이 “적당한 이익을 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잭슨

여성보건기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낙태 규제에 대한 권한은 국민과 그들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아간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10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발효됐다.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을 일깨워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입법은 실종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태아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태아 살해가 죄가 아니라 은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교계 전문가들은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관련 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전운성 미국 변호사는 이날 기도 회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헌법상 낙태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다”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고려해 이번

판단을 내린 미국처럼 한국도 지난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의 오류 가능성은 없는지, 해당 판결이 국민에 의해 국회에 위임된 입법권을 침해한 소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복 목사는 “교회가 그동안 낙태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몰랐고 침묵해왔다. 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크리스천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소리를 내고, 대체 입법이 하루빨리 마련돼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도회에서는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제정돼 태아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낙태와 동성애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을 위해 ‘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음세대가 거룩하고 순결한 성 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등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했다. 다음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는 오후 8시(김은호 목사)에서 열린다.



군교회 ‘푸드트럭 위문’ 장병들 마음이 열렸다

팬데믹 선교 대안으로 푸드트럭 아이디어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3주간 바다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후 입항하는 것이었다. 정박한 함정 안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내렸다. 그런데 이들은 숙소가 아닌 어딘가로 달려갔다. 도착한 곳엔 트럭이 한 대 있었다. 트럭 안에 함정에선 좀처럼 맛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했다. 장병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음식을 먹으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어린 아이처럼 장난을 쳤다. 삭막해 보였던 함대 분위기는 이 트럭의 존재로 일순간 환해졌다.

해당 트럭은 단순한 푸드트럭이 아니다. 2함대사령부 영내 교회인 해군평택교회가 ‘찾아가는 군선교’를 위해 운용하는 트럭이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군선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매우 획기적인 돌파구 없이 가만히 있으면 난관을 뚫기 쉽지 않아 보였다. 이때 해군평택교회는 푸드트럭을 통해 장병들 곁으로 직접 다가간다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는 그동안 군선교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푸드트럭 선교방안이 나오자 즉각적으로 일선 교회의 도움 손길이 뻗었다. 서울 영락교회(김운성 목사)에서 4500만원에 달하는 푸드트럭을 후원해줬다. 즉석 간식들은 해군평택교회의 선교 예산을 통해 준비됐다. 교회는 민간 카페에서 즉석 아이스 음료와 와플 등을 직접 구매, 제작해 장병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푸드트럭 선교는 장병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켰다. 해군 장병들은 함정 근무의 특수성으로 2~3주간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다. 장병들은 좁은 함정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식생활 등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런 가운데 푸드트럭은 일종의 ‘해방구’가 되는 것이다.

무기지원대대 백건우 상병은 “더운 여름에 임무를 수행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매우 획기적인 돌파구 없이 가만히 있으면 난관을 뚫기 쉽지 않아 보였다. 이때 해군평택교회는 푸드트럭을 통해 장병들 곁으로 직접 다가간다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는 그동안 군선교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끼고 있다”며 “응원에 힘입어 부대원들이 심기일전해 목숨 바쳐 우리 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군선교’라는 본연의 목적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2개월간 함대 내 교회의 인기가 치솟은 것은 물론, 교계의 선한 이미지도 확산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크게 감소했던 예배 참석 인원도 10배 정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앞으로 푸드트럭 선교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평택교회는 더 많은 분량으로 부대 격오지와 서해 최북단(NLL)을 사수하고 있는 함정 근무자들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김상혁 해군평택교회 군목(소령)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니면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침체된 군선교를 되살리는 톨모델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 조장?... 생명 살리는 마지막 선택지

제주도의회 ‘베이비박스 설치 조례 제정’ 공청회

부득이한 사정에서 아기를 맡기는 ‘베이비박스’(baby box)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아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영아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긴급 구호로 보는 견해도 있다. 현실적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베이비박스가 길에 버려지는 아기를 살리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23일 제1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발표에 나선 양승원(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

이나 위기 임신과 아기의 장애, 출생신고 사각지대 등의 이유로 유기 위험에 노출된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보호 장치”라고 정의했다.

베이비박스는 집 벽을 뚫어 공간을 만들고 문을 설치한 뒤 버려지는 아기가 박스 안에 놓이면 집안에서 벨 소리를 듣고 데려올 수 있게 설계됐다. 아기를 두고 가는 순간 벨이 울리며 상담원이 나가 상담을 진행한다. 맡겨진 아이 중 17%는 원가정(친부모)으로 복귀하고, 17%는 출생신고 후 입양절차를 밟는다. 나머지 66%는 복지시설로 가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편지와 함께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의 행동을 영아유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소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데려간 교회는 항상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A씨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사 역시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연취현 변호사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아유기 조장 지적에 대해선 “베이비박스 합법화를 반대하는 아마 거의 유일한 근거가 아닐까 싶다”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2항을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 변호사는 “제3자를 통해 보호를 의뢰한 보호자를 영아유기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적 미비나 법의 모순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배지연 대전세종연구원 전 연구원은 베이비박스의 과제로 개별 서비스와 전문 상담, 미혼모·한부모가족·위기 임신 지원 단체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차원의 ‘위기 임신·출산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임산부는 건강할 출산을 하고 생명을 건어나야 한다”며 “어쩌면 베이비박스는 위기에 빠진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현(세종대 석좌교수)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아가 조례 제정, 미혼모 지원센터와 영아 입시 보호센터 설치까지 순조롭게 성사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해 아직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지만 생명 살리는 일을 주저해선 안 된다”며 “아동안전과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경기도의회는 베이비박스 운영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영아유기 조장 논란 등으로 보류됐다.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교회 담벼락에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현재까지 약 2000명의 위기 영아의 생명을 보호했다. 또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 꾸러미와 생활비 및 병원비, 주거, 취업 등 400여 명의 가정을 3년간 무상 지원하고 있다.

2012년 8월 입양특별법 개정으로 아이를 입양기관에 등록하기 어려워지면서 늘어난 영유아 유기에 대응책으로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현재 독일과 체코, 폴란드 벨기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 군포 새가나교회도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제주 베이비박스 설치를 위해 건물의 구조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가 장로교 대화 간 이유... “내 뿌리는 장로교”

증조부부터 평양 장로교...

이영훈(68)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강남구 총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열린 ‘한국장로교회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목사는 어린 시절 장로교단인 총현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기억 때문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자격으로 기념대회에서 축사를 했다.

그는 먼저 “나는 장로교에 큰 사랑의 빛을 진 자”라고 했다. 평양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목사 증조부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교회 건축을 도왔다고 한다. 평양에서 미션 사업을 크게 했던 조부 이원근 장로는 장로교단인 평양 서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1948년 가족을 이끌고 월남했다.

이 목사는 “저희 가족은 월남 직후(월남민을 돕던 장로교단인) 영락교회 천막에서 한 달 동안 지내다가 거처를 마련한 뒤 옮기셨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 가족이 서울 중구 장충동으로 이사한 뒤 출석한 교회는 김창인 목사가 시무하던 총현교회였다.

그는 “당시 총현교회 담임은 김창인 목사였고, 교회학교 교장은 조연일 목사였다. 김 목사님 막내 아들 성호와 같이 교회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이 목사 조부는 64년 거동이 힘들어져 서울 서대문 한 개척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석 달

뒤 조부는 “젊은 목사가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고 열정적이다.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이 교회로 옮겨야겠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말한 젊은 목사가 당시 27세였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였다.

이 목사는 “내 신앙의 뿌리는 장로교다. 장로교 신앙 교육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며 “장로교 신앙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 한국장로교회가 한 마음 한뜻으로 연합해 복음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7)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국제적 일꾼을 키우도록 투자하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과 열정,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다양성 존중 자세,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영어 능통 및 그 외 유엔공용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구사 가능자선호”는 한국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국제기구 진출 자격요건을 적시한 것이다.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2년부터 한국인이 국제기구에서 전문가 수준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0명을 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일할 위의 자격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교사 자녀들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혐의의 선교에 대한 정의가 그들의 관심의 폭을 너무나 좁히거나, 자신들은 선교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불필요한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한국 자생선교단체 가운데 하나인 바울선교회의 국제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성춘 선교사는 그의 “엠펬케이, 선교사 파송 전략의 실현”이라는 칼럼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신앙 계승의 장애를 넘어서 선교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를 이은 선교사 활동과 전문연구가와 국제적 선교지도자로 세워져 현지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

화를 위한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는 선교현지의 교단 목회자로, 선교사로 현지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자신들이 졸업한 선교사자녀학교에 교사로 돌아가기 위해 공부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미 교사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2대째 타문화권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선교사 자녀 모두가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가진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그 선교적 정체성을 계속하여 재인식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규선교사 훈

대를 이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폭넓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문인들에게도 적절한 안내와 좋은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개발에 관심을 가진 MK들이 국제기구 및 NGO에 도전하도록 격려하자

련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위해 선교사자녀들을 위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성춘 2022) 이런 훈련의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선교사로 부모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한 훈련이 되겠지만, 일반 전문인의 길을 가는 엠케이들에게는 17주간이라는 훈련기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선교사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유엔 분담금을 9번째로 많이 감당하는 국가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뒤를 이어 2.574% 를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예산은 30년만에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만큼 국제사회에 참여도가 높아진 한국이 아직까지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숫자는 비율적으

로 적어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할 분야이다. 예를 들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과정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국민을 선발하여 정부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일정기간 유엔 및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제도이다. 국내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만32세 이하이며 영어에 능숙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처음 국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유엔 사무국에 신규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도 있다. 유엔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전문직원 채용 시험으로 미진출하였거나 과소진출국 국민을 대

다. 또한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들에도 많은 기회가 있다. 세계적인 NGO들이 한국으로 진출하여 많은 금액을 모금한다. NGO들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들여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자 노력한다. 그렇기에 NGO들의 많은 활동들이 선교사들이 추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과 유사하나 그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에서 모금하는 큰 NGO들의 예산을 보면 얼마나 선교계와 비교가 되는지 알 수 있다. 한국내의 대표적인 다섯개 NGO 수입예산은 한국의 3만여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예산보다 많다. 그렇다면 이

원선교사 한 사람을 후원하는 금액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심지어 30년 전이나 변함없이 한달에 100달러나 200달러이지만, 아동들을 지원하는 금액은 40불 정도 수백구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그렇다고 NGO들이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만큼 재정적인 면에서 전통 선교단체들은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직접선교보다는 국제개발과 같은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NGO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NGO 라고 해서 재정적인 보상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주 귀하고 드문 일이 되고 있으나 NGO 들에는 많은 관심자들이 모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재정적인 보상은 일반 회사에 비해 적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하여 보람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심자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후보들이 있다면 선교사 자녀들이다. 그렇기에 선교사로 대를 이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만 보람 있는 국제개발에 관심을 가진 선교사자녀들에게 국제기구나 NGO 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안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문가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때에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 또한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방향을 도와줄 수 있다. 물론 낮은 직급에서부터 큰 영향력을 끼치지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게 될 때 지금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좋은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전문가들을 선교사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전과 훈련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돌봄에 더욱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35. 신약에 등장한 회당

사도바울은 선교를 위해 새로운 도시(지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루스드라와 빌립보 두 도시(지방)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심을 하였던 다메섹까지 포함하면 바울은 11개 도시에서 회당을 찾습니다.

바울이 찾았던 도시의 회당을 열거하면, 다메섹을 포함하면 11개 도시 회당들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예수님도 활용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병자를 고치셨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기록이 4복음서에 골고루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사역을 통해서 칭송(눅4:15)받으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 바리새인과 갈릴리의 원인(마12:9-14)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회당이 56회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회당이 34회 등장합니다. 회당을 빼놓고는 예수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고세진 박사는 성서 고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예루살렘 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관심이전에도 회당에 출입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소에서 이미 회당 교육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인이 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할 때에도 회당을 활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포해온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때렸다(행22:19)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가면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회당을 지역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던 것(눅4:19)처럼 바울도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행17:2)합니다. 구약을 알고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은 훌륭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로마황실이 '지배국 문화 존중 정책'을 활용 하였습니다.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교 회당에서 진리를 전하면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을 활용하면 바울은 보호 받을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Synagogue)은 '함께 모인다(Synagain)'라는 말에

습니다. 시편 74편 8절에 등장하는 회당은 '백성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회당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외경인 마카비서에도 회당은 없습니다. 포로기에 미미하게 시작한 회당이 친구약 중간기 말에 활짝 피어났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회당은 보편화되었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인 400여개의 회당이 있었습니 다. 1세기 말엽 전 세계에 1000여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남자 성인 10명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 신앙을 전수하고 유대인 문화와 전통을 지켰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삶의 중심

신약성경에 회당이 56회 등장, 회당을 빼놓고는 예수님 사역 설명할 수 없어...

회당장이 회당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아이로를 위시해서 몇 사람의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마다 세 명의 회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행18장)에서 회당장(그리스보, 소스테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회당장이 같은 회당을 섬겼거나 고린도 여러 개의 회당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회당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아이로를 위시해서 몇 사람의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마다 세 명의 회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행18장)에서 회당장(그리스보, 소스테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회당장이 같은 회당을 섬겼거나 고린도 여러 개의 회당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당이 포로시절에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회당의 기능 때문입니다. 회당의 기능은 유대인의 종교, 문화 그리고 생활 중심(herb)이었고 지금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센터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회당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의 신앙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다양한 회당의 기능은 회당의 다양한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당의 다양한 이름을 열거해보면 베트 하테필라(기도의 집), 베트 하크네세트(집회의 집), 베트 미드라쉬(학습의 집), 베트 세페르(책의 집), 베트 크네셋(만남의 집) 등등입니다. 회당의 다양한 이름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며, 토라를 읽었던 유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은 학교, 기도실, 예배당, 문화학습장 그리고 법원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은 1세기 중엽에는 외인을 환대하는 여관역할도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 예배에는 율법학자가 율법을 가르쳤고, 존경하는 손님이 방문하면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더지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절망 중 유일한 소망 (삿 1:1~7) 찬 446장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삿 1:1). 롯기는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멜렉, 다윗은 당시 한 가정 혹은 한 나라의 큰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챕터가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

향력 있는 큰 인물의 죽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누구' 혹은 '무엇'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화 믿음의 유산 (삿 2:7~10) 찬 505장

여호와와 사사가 '보감'에 나타나서 '너희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세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우상을 섬김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부모 세대가 '말씀과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유산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수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하여 (삿 3:15~23) 찬 324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사사 '오니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베냐민 지파의 원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을 때, 준비해 간 칼로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 8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에훗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에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목 믿음과 순종 (삿 4:1~4) 찬 377 장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솔 왕 야빈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야빈은 철 병거를 구백 대를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더불어 군사만 명을 이끌고,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의 군대와 맞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바락은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일만 명을 모아 다불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와 전투하라'는 명령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히 11:32).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합니다.

금 큰 용사여 (삿 6:11~16) 찬 48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하며 괴롭힙니다. 이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드온은 나약한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

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그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삿 6:12b, 16)' 큰 용사로 다듬어져 갈 기드온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입마누엘'입니다.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할 때, 우리는 팔려진 사명의 구간을 큰 용사로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토 힘 내지 말고, 힘을 빼세요 (삿 7:6~8) 찬 333장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려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과 경계를 소홀히 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전쟁은 군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과업을 달성하고자 더 많

은 돈, 많은 인맥, 많은 정보,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인간의 힘과 노력만 의지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더 많은 힘을 보태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 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교회음악 이야기(19)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레반도프스키와 시편 150 편

이 시대 한국 지성의 거장이던 이여령 교수께서 지난 2022년 2월 26일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에 남긴 말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고맙았어요"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다가 삶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적 교훈이 됩니다. 그는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후에 남긴 말씀이 행 1: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바른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찬양 행위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성경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시편의 결론인 마지막 장 150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근본적인 목적은 믿음에 대

우리의 호흡이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한 우리의 반응을 표현하거나 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시편의 종결인 150편에서 네 가지(Where, What, How, and Who)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어디(Where)에서 찬양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 권능의 궁창,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무엇(What)을 찬양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하나님의 창조, 구원 및 보존의 섭리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전개 과정 중에 보여주신 크신 권능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How) 찬양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3-5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관악기(나팔)와 현악기(비파, 수금) 목관(통소) 그리고 타악기(소고) 등이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용하는 모든 악기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지만, 내 삶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조건

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Who) 찬양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즉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악기들을 연주함은 물론이고 온갖 지평의 담긴 영혼의 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멋있는 시편의 종결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여러 작곡가들이 이 시편 150편을 가사로 해서 음악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합창음악으로 이 시편을 작곡한 사람은 19세기 유명한 유대인 작곡가 루이스 레반도프스키 (Louis Lewandowski (1821 - 1894)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폴란드 유대인으로 태어나 고아로 12살 때 독일로 건너와 독일 유대인으로 활동하다 독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베를린의 노이에 회당 (Neue Synagogue)에서 음악 감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오늘날 전 세계의 회당 예배의 회중 음악의 많은 곡을 남기며 유대 음악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작곡가입니다. 그의 음악은 당시 독일의 멘델스존

(Felix Mendelssohn 1809-1847)의 음악과 유사한 고전/낭만주의 전통적 형식 구조인 ABA 형태를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찬양인 시편 150편이 그러한 형태를 취하여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교회음악의 뿌리가 된 유대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찬양을 만들어 회중들과 교감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좋은 교본이 되는 교회 성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소유하고 영원한 삶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며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빛진 자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가 쓴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우리는 자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iyoon@wm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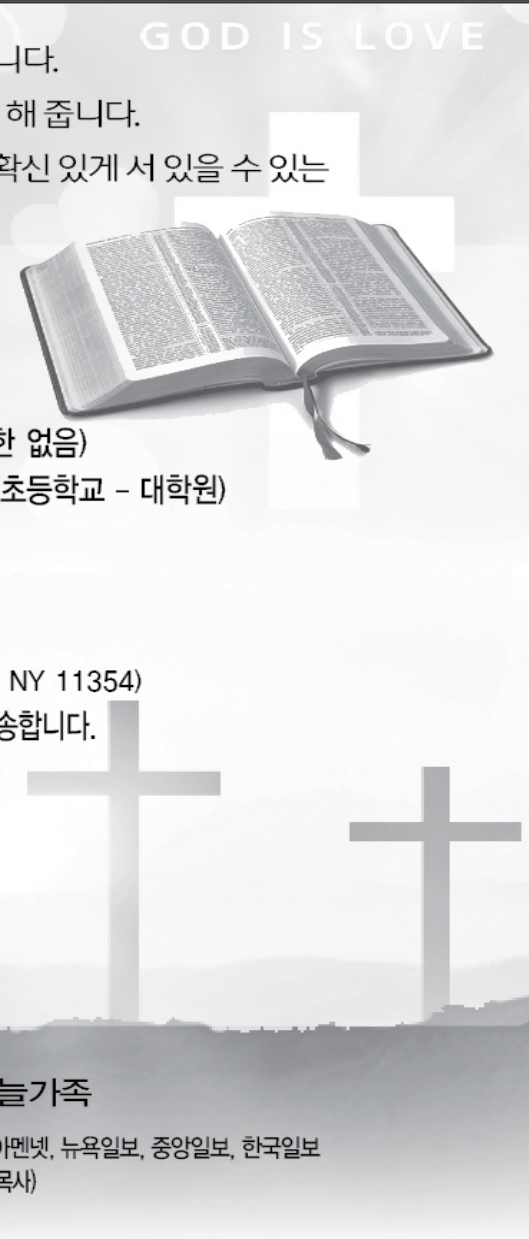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최연소성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미정(추후 발표)
-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NIV, KJV(or NKJV) 중 택일
-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하늘가족
광고후원: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이사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연하수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스페인

LOGOS-HOPE 배가 40년 만에 6월 한 달간 세비아에 정착했습니다. 세비아의 목회자나 교회 리더 중의 상당수가 40년 전에 LOGOS 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자원 봉사자로 섬긴 분 들입니다. 배가 일반에 공개되기 하루 전 배를 방문하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OM 선교회의 창립자이신 George Verwer 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고 잠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비전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여쭙었더니 말씀입니다. "기도 동원입니다. 먼저 당신 같이 '미친 사람'을 5-10명 동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바라세요." 그것이 바로 OM 사역의 간증이며 다섯 척의 배가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방문한 결과로 최소 22개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를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차세대 리더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스페인의 교회가 없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2022년 봄학기 가 종강 났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신학교 사역을 준비하며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창의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가능한 사람은 대면 수업으로, 아닌 경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세비아 신학교를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봄학기 종강을 축하하며 말라가 캠퍼스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배야야 점심을 함께하고, 성경 퀴즈 게임도 하고, 학생들의 치열한 논문 준비 이야기도 들어줍니다. 세비아 신학교의 재학생 대부분은 풀타임 직장이 있거나 일반 대학의 풀타임 학생입니다. 졸업 후 어디서 어떻게 섬길지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신학교 훈련을 감당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동안 Rio Grande Bible Institute 에서 온 세 명의 인턴이 열심으로 섬기고 돌아갔습니다.

알메리아에서 Salam Project 를 통해 두교회에서 구약의 파노라마, 청년/유년 사역, 무슬림 커뮤니티 아웃리치로 섬겼고, 세비아에서 2주간 LOGOS-HOPE에서 자원 봉사로 섬겼고, 마지막은 Operation Transit 사역으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알메리아를 오가는 페리 승객 (대부분이 무슬림)에게 아랍어로 된 성경, 예수영화, 어린이 그림 성경등의 책자를 건네는 사역을 했습니다. 6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도전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올해 부터는 사역 인턴십과 Spanish Language Center를 통한 스페인어 언어 연수를 상시로 열고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



세비아에서 사역 인턴십이나 스페인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알고 계시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세비아 신학교 가을학기 재가 맡은 'Introduction to Ministry' 강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하나님께서 스페인 개신교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3. Spain Church Planting Initiative와 팀 구성원들의 건강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 우리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유익상 선교사
seedfinance@gmail.com

체코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체코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체코에 정착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David Piksa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체코어 12주 과정을 마치고 그들의 요청으로 다시 12주 과정을 연장하여 가르치고 있고 EEMF에서 필요한 간식과 물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경과 어린이 성경 등을 구입하여 우크라이나 전도사역에 활용하고 있으며, 홍성교회 청년 단선팀들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공연 집회와 섬김을 통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유럽 복음화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EEMF에서 우크라이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를 통해 동역하는 체코 교회들 가운데 소그룹 사역이 활짝 열리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유럽 한인 동역자들을 위한 커피브레이크 사역을 줌으로 담당하는 김 선교사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고 커피브레이크와 제자훈련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길 기도합니다.

EEMF 선교 세미나

체코 및 동유럽선교와 선교사의 삶을 주제로 김정희 선교사가 시은소교회와 홍성교회 단선팀들에게 선교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7년간 선교지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 한국 교회와 EEMF가 성령 안에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한국 교회와 현지 교회와 함께 합니다. 선교사는 주님의 무익한 종일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들과 20여 명의 스태프들이 일주일간 타보르 캠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 곳까지 달려가 캠프의 필요들을 섬기며 학생들과 스태프들을 격려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기도해 주었습니다. 체코 교회의 성경 캠프는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 신앙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접촉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성교회 단기선교팀

예수의 어부들 전도팀과 함께한 프라하 목요 노방전도 사역에 홍성교회 청년들이 체코어 찬양과 무언극과 워십댄스를 통해 이지호 포데브랏 광장은 은혜와 영성으로 충만한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토요일 프라하에서 정원과 수많은 대사에서 후원하는 동성애 퍼레이드에 6만 여명이 불렀는데, 전날 금요일 홍성 단선팀은 퍼레이드 출발지인 바츨라프 광장과 프라하 후스광장에서 영적으로 대적하는 노방 전도 사역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500여명에게 준비한 전도용품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복음화를 1% 밖에 안되는 체코에서 전도 사역을 경험한 홍성 청년들은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사탄을 두렵게 만들

고 무장해제시키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루마니아 선교 정탐

SEED 유럽팀 루마니아 최동수 선교사님 사역지를 탐사한 지역장님과 함께 위로차 방문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국경까지 마중 나오신 Feri 목사님과 최선교사님과 함께 세 시간 밤 길을 달려 도착한 하닷시 시청 숙소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하닷시 시장이자 목사이신 Feri 목사님과 최선교님이 섬기는 Hadadi 루마니아 침례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한국의 부흥운동에 대해 소개도 하였습니다. 또한 릴레이 집시교회 등에서 세 번의 말씀과 간증을 나누며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메웠으나 지금은 소수의 성도들만 자리를 지키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으로 섬겨준 목사님 딸 알리스 자매와 애니 집사님 그리고 열한 살 로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글로벌 체코 제자훈련 1



기(사랑의교회 제자훈련 4기) 가을학기에 은혜 주사 다섯명의 훈련생 모두 최선의 훈련을 받도록 믿음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2.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에 은혜를 더하시고 돕든 손길들을 붙여 주사 우크라이나인들을 준비시켜 유럽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세력을 얻게 하옵소서
3. 예수의 어부들 노방전도팀 사역이 다른 도시들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을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사역에 체코 교회들과 귀한 동역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4. 체코와 동유럽 선교를 위해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협력 교회와 재정 후원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5. 모친(곽중순 권사)과 장인 장모님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 기쁨, 사랑이 선교사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한정훈선교사/김정희선교사
czechhan16@gmail.com



갈보라성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679-7576, Fax: (702) 259-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공경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영양전도: 매주(목) 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roso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ittle Rock, AR 72211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단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St, Levittown, PA 1906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장영): 오후 1:45 단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on City, MD 21042	보스탄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254) 835-4579, www.bostona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 생 배 배: 오전 6:00(목/토) 구역 예배: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749-99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일신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910) 8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 542-0288, Fax: (215) 542-8037 706 Wilmer Rd, Ho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835-1842(H), (254) 6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bcoma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인/터/뷰

퀸즈장로교회 정길표 장로

멈출 수 없는 선교의 길!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에서 풀타임 선교사로서 파송 받아 아프리카 케냐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선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정길표 장로를 만나 앞으로의 선교사역 계획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 선교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요?

1994년 미국에서 전기 공사 사업을 하던 차에 퀸즈장로교회에서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처음 단기선교를 가게 되었고, 그 후 계속해서 매년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를 통해서 현지에 전기 관련 및 그 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기공사와 현지에서 전기공급을 위한 Solar Panel 등을 설치하는 선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공사가 필요하여 선교지로 발걸음을 자주 향하는 일이 생

처음에는 제가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술적인 부분에서 선교에 관심을 가졌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선교의 근본적인 부분인 영적인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자주 방문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하는 일보다 다른 일들이 더 우선시 되는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는 선교지에서 온전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교육해 현지 사역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이 필

수 있는 신학교를 세워서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함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 모든 일에 기쁨을 마련하기 위해서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기도 가운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선교지에 세우실 선교센터 설립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교센터는 아프리카 케냐와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스탄에 거점을 두고, 선교센터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훈련센터로서 거주하시는 선교사들의 신분적인 문제와 정치

아를 비롯한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는 젊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훈련하기를 원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의 젊은 세대와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어, 그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교사 한 명을 훈련시켜 파송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물질적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현지에서 언어와 문화를 이미 습득한 더 많은 사역자들이 보다 적은 지원 가운데서도 빠르게 훈련되어 미전도종족과 전도하기



킬리만자로가 보이는 비전센터부지



케냐 키마나선교센터 앞에서 케네스 선교사님과 함께



키르기스스탄에 이바노프카 선교 센터를 정비 중

아프리카 케냐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을 거점으로 선교센터 설립 진행 올바른 신학으로 현지 선교사 배출을 위한 선교센터가 되기를...

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매번 선교지로 향할 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적, 재정적인 부분들을 놀라게 더욱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주신에 따라 더욱 선교지에 영혼들을 마음에 품게 하였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권유로 선교지로 파송되기 이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서 바른신학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아무리 많은 급전적,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교지에서 바른 개혁주의 신학이 세워져 있지 못하다면 영혼 구원이 아닌 일시적인 물질적 후원자밖에 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선교지들을 방문하면서 현지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연합신학교들이 많아 다양한 신학이 무분별하게 혼합적으로 섞여 있고, 이단들 역시 선교지에서 활발하게 사역하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바른 신학을 가르칠

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선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곳에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케냐와 키르기스스탄을 거점으로 선교센터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나이로비 북서쪽에 위치한 키마나 선교센터와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선교센터의 기존 시설들을 매입하기 위해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이바노프카 선교 센터는 수도 비슈케크에서 북동쪽으로 약 6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을 매입하여 시설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각 거점들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선교를 위하여 접근하기 힘들었던 중앙아시아

가 힘든 문화권의 나라들에 파송된다면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받을 기회를 제공해서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증거 하는 일들을 감당하여 세계선교화가 더 빨리 앞당겨 지기를 소망합니다.

▲ 앞으로 선교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선교지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필요합니다.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섬기실 분들, 건축, 의료, 언어에 능하신 모든 분이 다 사역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선교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은 영어권 사역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른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수 있는 교수님들 또한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Zoom과 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에 꼭 현지에 있지 않아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수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 신학 교수님들

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교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풀타임 선교사로 선교지로 향하게 될 정길표 장로. 인터뷰 내내 그의 표정속에서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흡신 느낄 수 있었다. 선교에 관한 문의는 stephenkc410@yahoo.com으로 하면 된다. stephenkc410@yahoo.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채널(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립 켈러 두란노 |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임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 내 마음도 설곳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